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7844.01	↓ 코스닥	1176.93
	(+200.86)		(-2.36)
↑ 금리 (연이자율)	3.680	↓ 환율 (원/달러)	1487.80
	(+0.006)		(-2.10)

신라면 40주년
농심, 2030년 매출
7.3조 목표
04



비메모리 흑자 예고... 노사갈등·中 추격 '변수'

청년고용률 43.7% 24개월 연속 하락

삼성전자 파운드리 흑자 앞당겨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 갈등에 따른 생산 불확실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중국 SMIC 등 현지 파운드리 업체들의 추격도 거세지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초호황을 비메모리 턴어라운드 연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당초 삼성전자 비메모리사업부의 흑자 전환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예상했으나, 최근 들어 2분기 조기 흑자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3면>

키움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익을 100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파운드리 및 시스템LSI 부문은 HBM4 베이스다이와 엑시노스2600 생산 등에 힘입어 소폭의 영업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의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의 공급 안정성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입단협사안이 삼성전자의 대외 신뢰도는 물론 AI 반도체 공급 전략 전반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4월 23일 평택 집회 당일 야간 시간대 메모리 공장들의 생산 실적이 18.4% 감소하고 파운드리는 58.1% 줄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은 물론 설비 손실과 복구 비용 등을 합쳐 3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생산과



이재명 대통령, LNG화물선 시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LNG선 화물창을 시찰하며 정기선 HD현대 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증권가, 2분기 삼전 영업익 상향
글로벌 빅테크 '공급 안정성' 집중
파업시 물량 TSMC 분산 가능성
中 SMIC, 웨이퍼 제조시설 강화

인 차질이 생길 경우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일부 물량을 대만 TSMC로 분산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전문매체 디지타임스는 최근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실제 생산 차질이 노조 주장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웨이퍼 이송과 주요 공정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교대 운영 체계도

구축돼 있어, 단기 파업이 곧바로 대규모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파운드리 업체의 거센 추격도 삼성전자 비메모리부문 반등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업체인 SMIC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406억위안(한화 약8조9360억원) 규모 자산 인수 승인을 받으며 수익성이 높은 웨이퍼 제조 시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키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7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7%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중국 SMIC가 5% 점유율로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중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반도체 생산라인은 자동화 비중이 높고 최소 운영 인력이 유지되는 구조여서 일반적으로 단기 파업이 곧바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다만 노조가 최소 운영 인력까지 파업에 동참시키며 생산라인 전면 중단을 목표로 할 경우, 당시 투입된 웨이퍼나 재공품 상당수가 정상 출하가 어려워질 수 있어 파업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파운드리 사업은 단순한 생산 차질보다 납기 안정성과 고객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쟁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물가 대응이 먼저"... 금리인하 가능성 갈수록 하향

신성한 금통위원, 점도표 상향 무게 "전쟁 변수, 인하는의 부담스러워"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점도표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정책 선호)로 분류됐던 신성한 금통위원(사진)까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중동발 고유가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진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 하방 우려는 줄어 들면서, 한은의 금리 섰법도 인하보다 물가 대응에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신 위원은 지난 11일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은 전쟁 변수로 인하는 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성장과 물가가 상충할 경우 물가에 무게를 뒀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 위원의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그동안 금통위 내에서 완화적 성향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신 위원은 재임 기간 여러 차례 금리 인하 소수의 견을 내면서 시장에서 통화 완화 선호 인사로 평가돼 왔다. 그런 신 위원까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금통위 내부의 논의 초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발언이 곧바로 신 위원의 향후 표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 위원은 12일 임기가 만료됐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인사가 임기 종료 직전 물가 우려를 강조했다. 한은 안팎의 정책 기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던진 메시지도 같은 흐름이다. 유 부총재는 한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동발 충격 이후 성장세는

예상보다 견조한 반면 물가 상방 압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하는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2월 전망 당시 올해 성장률을 2.0%, 물가상승률을 2.2%로 봤지만, 이후 상황을 보면 성장률은 2.0%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물가는 2.2%보다 높아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월 금통위까지 이런 흐름이 확인될 경우 2월 점도표보다 금리 경로의 확률분포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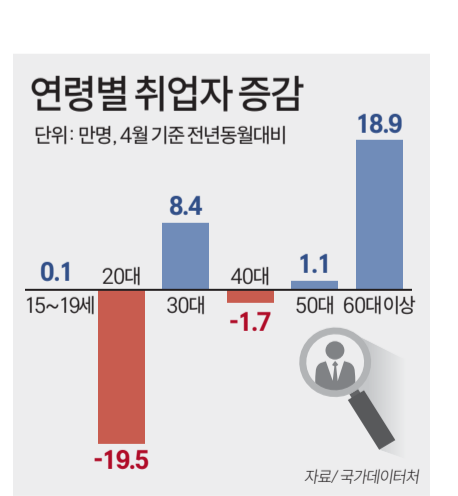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연령대별은 60세이상(18만9000명), 30대(8만4000명), 50대(1만1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20대(-19만5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19만4000명 줄며 4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월 전체 실업자 수는 85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동



메트로 한줄뉴스



- ▲李대통령, 미중 '사전협의' 앞두고 베스트·허리 평 연쇄접견 /사진 뉴시스
- ▲靑, 사이버안보 현안점검회의... '미토스發 보안 우려' 대응

- ▲與, '메가특구' 공약 발표... "지역서 국가 전략 산업 육성"
- ▲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 발표

- ▲오세훈 "소상공인이 서울 경제 허리"...정책금융 지원 공약
- ▲金총리 "삼성전자, 파업하지 않게 노사대화 지원"

안규백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미동맹 중요한 이정표 될 것”

(국방부 장관)

안 장관, 美 의회 주요인사 회동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지지 요청
“나무호, 군사대응 검토 단계 아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선사 소유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책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11~12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로저 위커미 상원 군사위원장, 잭리드 상원 군사위 간사, 릭 스타 상원군사위 해양력소위원장 등을 접견하고 동맹 현안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장관은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내 연합방위태세 유지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 의회 주요인사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안 장관은 12일 오전 헝 카오 미합중국 해군성 장관대행도 접견했다. 국방부 산하 해군성은 해군과 해병대를 관할한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가 함정건조에 있

어 우수한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선 협력에 있어 미국의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미 간 공동 안보의 증진에 기여하고, 한미동맹 격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해군성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헤그세스 장관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며 “국방부는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하는 방안 등에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요구해왔는데, 안 장관이 전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이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지원이나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는 않았고, 단계적 지원 방침은 우리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얘기된 것이라고 한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나 나무호 관련해서 대화한 것은 맞다. 대화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 요청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일반 상식선에서 얘기를 했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선상에서 여러 가지 이란에 대한 여러 여건이 있지 않느냐”며 “그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장비 파견, 정보 공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군사적 여려자 산 지원까지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를 준수해서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코스닥 유망기업, 혁신 생태계 함께 지켜야”

벤처단체 공동 입장문

코스닥 시총 상위기업 잔류 호소
규제 차등화 등 제도개선 계획 밝혀

벤처 관련 단체들이 유망 기업들에게 코스닥 시장을 떠나지 말라고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스닥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코스닥 유망기업이 시장에 잔류해 혁신 생태계와 시장 신뢰를 함께 지켜나갈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벤처 협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코스닥 시총액 3위의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테오젠은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단체 3곳은 “코스닥은 단순한 자금조달 시장이 아니라 혁신·벤처기업이 도약하는 플랫폼”이라며 “선도기업이 시장에 남아 성장할 때 투자자의 신뢰가 유지되고 후속 기업의 도전과 모험자본 유입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했다. 반대로 유망기업이 이탈할 경우 시장의 투자 매력도와 신뢰 기반이 약화되고 혁신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관기관과 코스닥 유망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장기자금 유입 기반 확충, 규제 차등화 등을 예시로 들었다.

단체들은 “코스닥 시장의 미래는 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자산”이라며 “유망기업이 긍지를 가지고 머무는 시장, 혁신·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코스닥 기업과 투자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코스닥협회는 이와 별도로 알테오젠에게 코스피 이전상장을 재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이 코스피 시장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최근 급등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코스닥협회는 공문에서 “코스닥 시장은 알테오젠과 같은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했고, 알테오젠의 존재는 투자자 신뢰 유지와 수많은 후속 기술기업의 코스닥 상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코스닥 대표기업의 코스피 이전은 시장 전반의 투자 매력도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린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한때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였던 셀트리온도 2018년 당시 코스피로 이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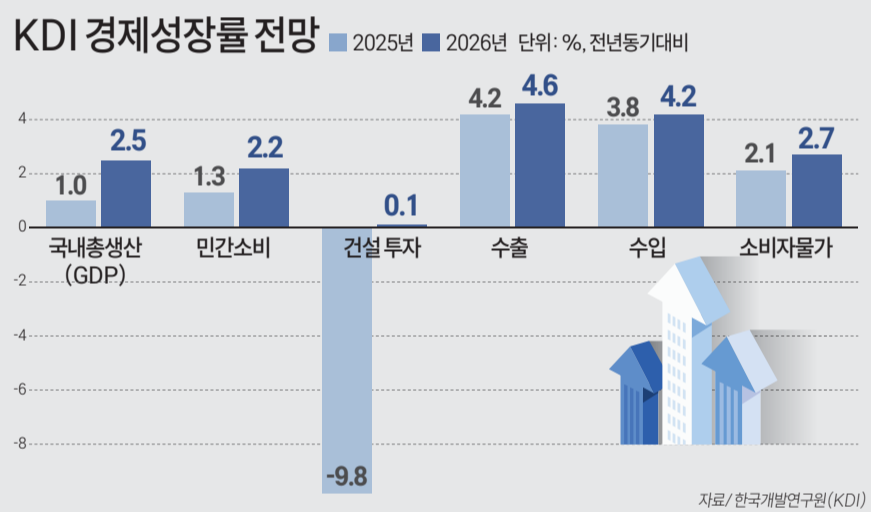
다만 알테오젠은 당초 계획대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알테오젠은 지난해 8월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공개한 뒤 같은해 9월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며 채비를 마쳤다. 지난해 연말 임시주주총회선 이전 상장 안건까지 통과시켰다.

회사는 올해 내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



KDI,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2.5% 제시

반도체 수출 호조·내수개선 흐름 반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6%포인트(p) 올렸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비롯해 내수 개선 흐름을 반영한 상향조정으로 해석된다.

KDI는 13일 발표한 ‘2026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예측치인 1.9%와 비교해 큰 폭의 상향이다.

보고서는 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올해 2.5%로 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요 지표가 일제히 전년대비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소비(1.8→2.6%)와 설비투자(2.0→3.3%), 건설투자(-9.8→0.1%), 수출(4.2→4.6%) 등이다.

중동 사태와 미국발 관세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경기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내수의 경우, 소득 여건이 지난해보다 개선되면서 나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반해, 2027년 성장률은 1.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건설투자(1.1%) 여건은 올해보다 개선되는 반면, 소비(1.8%), 수출(2.2%), 설비투자(2.4%) 등은 올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26~2027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경기 확

장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의 정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관련 언론설명회를 갖고 “올해 2.5%, 내년 1.7%의 성장률은 우리가 추정한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는 “사이클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적어도 2026년도까지는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2027년도에도 수요가 있지만 지금보다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2.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발 물가압력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상승률도 지난해 1.9%에서 올해 2.5%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국제유가 안정화를 예상했다. 이에 물가상승률이 2.2%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반도체 공급 능력이 빠르게 확충되는 경우 경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중동 전쟁이 격화하거나 장기화하는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과 생산 비용 상승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



물가지표 상승세... 인상 사이클 견해도

>> 1면 ‘물가 대응이 먼저...’서 계속

물가지표도 한은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 2.2%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특히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가 상승은 석유류 가격에 그치지 않고 수입물가와 생산비용을 거쳐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변질 수 있

다. 공급 충격은 성장을 낮추고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만큼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대응이 까다로운 변수다.

반면 성장 하방 우려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일부 완화됐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0% 증가한 85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621억1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37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성장이 빠르게 꺾이는 국면이라면 한은이 물가 부담에도 경기 방어를 고려할

여지가 커진다. 하지만 반도체가 성장을 때리고, 물가와 환율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5월 금통위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 점도표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금리를 올릴지 여부보다 금통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얼마나 높게 보는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외부 충격과 경제 여건에 따라 인하보다는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견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이건 못 좁힌 '28시간'... 정부·법원 손에놓인 파업 공방

중노위, 조정안 없이 절차 종료
노조 "추가 대화 없다" 강경
정부,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

20일 가처분 판단이 분수령
21일 총파업 명분·동력 가를 듯
장기화 땀 반도체 수율 부담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스

삼성전자의 노사간 사후조정 절차가 13일 청와대가 노사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파업 막기'에 정부가 본격 나섰다. 법원도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를 오는 20일까지 내놓을 예정이어서 파업공방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차 임단협 사후조정 회의는 전날 오전 10시 시작해 이날 오전 2시 53분까지 약 17시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1·2차 회의를 합산하면 28시간을 넘긴 마라톤 협상이었다. 중노위는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조합 삼성전자지부(삼성전자 최대 노조) 위원장은 결렬 직후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결렬을 선언했다"며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2024년 성과급이 0

원이었다"며 "고통은 분배하면서 열매는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거부한 중노위 조정안의 핵심은 기존 EVA 기준 OPI(초과이익성 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DS부문에 한해 OPI 초과분의 영업이익의 12%를 특별경 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지급 조건으로 '2026년 매출·영업이익 국내 1위(SK하이닉스 대비 우위)'를 달아 외부 요인을 성과급 기준으로 삼은 데다 DX부문 성과급 상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1등 기업인데 왜 2등 기업과 비교해 성과급을 정하느냐"며 "일회성 안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노

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유연한 제도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가 즉각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도 지시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발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우려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제도로, 발동 시 30일간 파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역대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이후 네 차례로 모두 조선·항공업종에 한정됐다. 이번 삼성전자 파업이 AI 반도체 공급망을 이유로 적용한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결렬 이후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변수는 법원으로 넘어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와 전삼노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0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파업 자체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인용 여부가 파업의 명분과 동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심문의 핵심 쟁점은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수성과 성과급 요구가 쟁의행위의 법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은 정식 재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크기 전에 일단 막고 시작하지는 취지"라며 "인용과 기각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가처

분이 인용될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어서 파업 명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노조는 파업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인정받는 셈이 돼 총파업 동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도 재판부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일부 인용되더라도 파업에 문제없다"고 맞섰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파업 참여 동참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여명이다. JP모건은 18일간 파업 시 DS부문 매출이 최대 5억9000만 달러(약 8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실제 피해는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측은 전담 조직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웨이퍼 공정 자체는 자동화가 잘 돼 있어 단기 파업으로 라인이 바로 멈추지는 않는다"며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공백으로 수율 저하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강유정 "노사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수석대변인)

사후조정 종료에도 파업 전 대화 여지 청와대, 긴급조정권 발동엔 말 아껴

청와대는 13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사후조정이 종료된 건 했지만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노사 대화에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날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

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부차관으로부터 금일 새벽까지 진행되었던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 총리는 사후조정이 결렬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간의 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진 기자 syj@

중금리 대출 확대 압박... 시중은행·인뱅 '역할분담' 신경전

대통령실, 은행권 공공성 강화 주문
5대은행 1분기 공급액, 인뱅 웃돌아
KB국민, 카카오펙크와 격차 축소
NPL·연체율 상승에 건전성 우려
당국 취급비중 상향에 부담 쟁점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둘러싸고 금융업권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시스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둘러싸고 금융업권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은행을 '준공공기관'으로 규정하며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지원 등 사회적 역할 강화를 주문하면서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는 누가 더 역할을 맡아야 하느냐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분

기 5대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7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7650억원보다 310억원 많다. 특히 KB국민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3068

억원으로, 카카오뱅크(4500억원)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포용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 리스크 부담을 누가 더 감내할 것인지를 두고 업권 간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은 위험가중치(RW)가 높은 중저신용대출 확대가 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대출과 정책금융 지원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경우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부실채권(NPL)비율은 지난해 말 0.28%에서 올해 1분기 0.34%로 올랐

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도 0.28%에서 0.30%로, 하나은행도 0.35%에서 0.37%로 상승했다.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포용금융 역할을 확대해온 만큼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2~34%대를 유지하고 있다. 토스뱅크가 34.9%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 32.5%, 카카오뱅크 32.1% 순이다. 신규 취급 비중 역시 금융당국 기준인 32%를 웃돌았다. 토스뱅크는 48.8%, 카카오뱅크 35.7%, 케이뱅크 34.5%를 기록했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영향으로 연체율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토

스뱅크는 지난해 1.11%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 0.6%, 카카오뱅크 0.51%를 기록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8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분기기를 고려하면 35% 이상으로도 추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이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시중은행 역시 정책금융과 기업대출 부담을 함께 안고 있다"며 "단순히 어느 한 업권에 부담을 집중시키기 보다 균형 있는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농심, 2030년 매출 7.3조 목표... “글로벌 톱 브랜드로”

신라면 40주년 글로벌 포럼

조용철 대표 “韓, 가장 세계적 맛 글로벌 넘버원 될 것이라 믿어”

누적 매출 20조, 판매량 425억개 매출 40%, 美·日 등 해외서 발생 해외매출 비중 60% 이상 확대 목표



(왼쪽부터) 신라면 오리지널, 로제, 골드, 토포바.

농심 신라면이 누적 매출 20조원을 돌파하며 K-라면의 새 역사를 썼다. 1986년 출시 이후 40년간 대한민국 1등 자리를 지켜온 신라면은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글로벌 ‘탑 브랜드’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조용철 농심 대표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신라면 40주년 글로벌 포럼’에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신라면은 시대에 따라 의미를 확장해 온 브랜드”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故 신춘호 회장은 한국의 맛이 가장 세계적인 맛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며 “신라면은 언젠가 글로벌 넘버원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아래 탄생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농심은 출시 40주년을 맞은 신라면의 누적 매출액(2025년 기준)이 2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누적 판매량은 약 425억 개로, 면발 길이를 모두 이으면 지구와 태양을 약 6번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주목할 점은 성장의 축이 글로벌로 이

동했다는 것이다. 누적 매출의 약 40%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심은 미국 1, 2공장에 이어 최근 녹산 수출전용 공장과 러시아 법인 설립 등 글로벌 공급망을 확장하며 ‘K-라면 영토’를 공격적으로 확장 중이다.

조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그룹 매출 7조 3000억원 달성, 해외 매출 비중 60%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글로벌 메인스트림 채널 확장과 물류 거점 확보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심은 신라면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18일 신제품 ‘신라면 로제’를 한국과 일본 시장에 동시 출시한다. 신라면 로제는 ‘신라면 토포바’에 이어 소비자들의 모디슈머 레시피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다.

심규철 농심 글로벌총괄 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

40주년 기념 신제품 ‘신라면 로제’ 우수·치즈 첨가 레시피 바이럴 주목

100여개국에 최단시간 유통 목표 케데헌·에스파와 브랜드경험 제공

서 열린 신라면 출시 4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발마케팅부문장은 “로제 파스타에 고추장을 가미한 한국적 매력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소구할 것”이라며 “신라면이 진출한 100여 개국에 최단 시간 내에 유통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로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유나 치즈를 넣는 레시피가 글로벌하게 바이럴 되는 점에 주목했다”며 “농심 발효연구소의 기술력이 담긴 고추장을 토마토,

조용철 농심 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신라면 출시 4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크림과 조합해 새로운 ‘K-로제’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라면은 제품을 넘어선 ‘문화 아이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의 파트너십, 글로벌 엠버서더 ‘에스파(aespa)’ 발탁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해외 주요 거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체험 매장 ‘신라면 분식’을 오는 6월 서울 성수동에도 선보인다. 조대표는 외식 사업 확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체인 사업보다는 한국의 모디슈머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가치 전달이 우선”이라며 “수도권에는 그날 만든 라면을 판매하는 등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대표는 내수 시장을 놓고 “국내 시장은 양적 팽창보다 고급화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존 국물 위주의 유통망을 넘어 건면파스타, 볶음면 등 모든 ‘누들’ 영역에서 글로벌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대해서는 “제조사로서 원가 압박 요인이 상당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격 인상은 소비자 상황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라면 누적 매출 20조원은 전 세계 소비자의 일상과 함께해 왔음을 증명하는 기록”이라며 “글로벌 식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농심은 이번 40주년을 기점으로 신라면을 ‘한국인의 정情’이 담긴 브랜드를 넘어 전 세계인이 즐기는 보편적인 식문화 브랜드로 인격화시키겠다는 포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정보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통신3사, 보안분야 4800억 투자

오는 9월부터 과징금 대폭 상향 KT, 정보보안실로 보안조직 통합 SKT, CISO 최고경영장 직속개편 LG U+, 보안전문팀 꾸려 대응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통신업계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통신사를 겨냥한 해킹과 유심 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하면서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낼 경우 조건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상한 3%에서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최근 3년간 고의 또는重大 과실로 법 위반을 반복했거나, 피해 규모가 1000만명 이상인 대형 유출 사고 등이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경영진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 한정했지만, 이제는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다. 유출 사고 범위도 해킹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훼손 및 시스템 마비까지 범위에 포함됐다. 보안 사고가 경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통신업체들은 국민 대부분의 실명 기

반 개인정보와 인증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회선 수는 약 5700만 개로 인구 수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악의 경우 해커가 심 스와핑(SIM Swapping) 수법으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와 유심(USIM) 인증키를 복제하면 비대면 대출이나 금융 계정 탈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타 업종보다 과징력이 크다. SK텔레콤이 지난해 4월 가입자 2700만여명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한 이유다.

전국에 설치된 수십만대의 소형 기지국(팜토셀)도 보안 위험 요소다. 통신3사가 현재 음성·데이터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별도로 설치해 놓은 팜토셀은 약

26만대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해커가 인증서 등을 복제해 팜토셀을 가짜 기지국처럼 만들고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단 소액 결제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약 2억4000만원 가량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통신3사는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해 체계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KT는 올해 보안 조직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최고경영진이 직접 보안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제로 개편했다. SK텔레콤도 최고보안책임자(CISO)를 최고경영자 직속개편했다. LG유플러스는 화이트해커 등 보안 전문팀을 꾸려 대응한다.

보안 투자 규모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통신3사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는 약

2700억원 수준에서 올해 4800억원으로 약 76%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랜섬웨어 등 신종 해킹 공격이 고도화되는 만큼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킹 수법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갈수록 고도화하는데, 이를 기업 차원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후징벌적인 책임전가만 될 뿐이라는 우려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해킹이 서버 침입 수준에서 금융 피해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 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보안업계의 공조가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



metro

靑, AI 해킹 대응 ‘차세대 사이버보안 방안’ 논의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 사이버안보 현안점검회의 진행 국가적 사이버 안보대응 역량 강화

청와대가 ‘미토스(Mythos)’ 등 인공지능(AI)의 해킹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논의에 나섰다.

청와대는 13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안점검회의는 미토스와 같은 AI 모델의 해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토스는 미국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이 개발한 사이버보안·해킹 특화 AI 모델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침투하는 공격 성능이 뛰어나 일반 민간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모델에 따른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안보실은 민·관·군 주관부처에 긴급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주관부처가 위협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AI 모델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형 AI 및 양자 기술 기반 보안 등 차세대 사이버보안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은 “대·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취약점 패치 등 신속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밝혔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오현주안보실 3차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보안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산업과 데이

터 보안 체계를 공고히해 국가적 사이버안보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與 국회의장 후보에 6선 조정식... 부의장은 남인순·박덕흠

〈與〉

〈野〉

의원 80%·권리당원 20% 합산
선출배경으로 친명계 조직력 꼽혀
“속도감·성과 있는 국회”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을 선출했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다.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국회부의장은 원내 1당·2당이 맡는 것이 관례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최종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투표를 시작했다. 박지원·조정식·김태년(기호순) 후보가 삼파전을 치렀고, 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민홍철 후보가 경쟁했다.

이날 투표에서 조정식 의원은 의원 투표(80%)와 권리당원 투표(20%)를 합산한 결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명심’(明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작동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하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과 당원들을 적극 공략한 결과란 분석이다.

실제로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던 1기 시절,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다. 국회의장 도전이 점쳐지던 상황에서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인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에서 조 의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친명계 표심 결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의원이 정무특보에서 물러나자 “언제나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11일에는 국회의장 경선에 적용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장은 조정식 의원”이라고 적은 민주당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조 의원이 6선으로 당내 최다선 의원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한 ‘동정표’가 대거 나왔다는 시각도 있다. 조 의원은 당시 친명계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전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 국회의장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추 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고, 친명계 조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번 경선에서 친명계 결집력을 더욱 강화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아울러 조 의원이 당 사무총장으로서 22대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한 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국회의장 선출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했지만 변별력은 크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의원들의 표가 조 의원에게 몰리면서 비중이 작은 권리당원 투표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당선 일성으로 “6월 국회 내외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빛의 혁명이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끌었듯 이제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는 국회로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6월 내 외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 새 모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부의장 후보로 박 의원을 선출했다.

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총 101표 중 59표를 얻었다. 6선 조정식 의원은 25표, 5선 조배숙 의원은 17표를 득표했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엄중한 시기에 부의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은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 우리는 원팀”이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규제혁신·예산지원으로 메가특구 육성”

정책위, ‘메가특구’ 공약 발표
규제 특례·정책 패키지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21일 앞둔 13일 지역균형성장 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 지역에 규제 완화, 재정·세제·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오는 6월 말~7월께 제출하기로 했다.

메가특구는 5구(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역 성장 거점이다.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 제공한다. 기업·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규제 특례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해 기업과 지역이 선택하도록 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메뉴판에는 없지만 기업과 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역의 현장 수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 응답형 규제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가특구 4대 분야 규제 특례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입지·인허가 분야(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 평가 원스탑 승인제 도입 등) ▲산업·기술 분야(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

거티브 규제 전환) ▲노동·인력 분야(국공립대 및 출연연의 겸임·겸직 허가 기준 합리화) ▲정주·교육 분야(거주시설 용도·건축 규제 완화) 등이 소개됐다.

메가특구 7대 정책 패키지로는 재정(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메가특구 우선 투자), 세제(기회발전특구

제도 활용하여 현행 최고수준의 세제혜택 제공), 인재(산학융합지구 확대), 인프라(고밀개발 활성화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지원), 기술창업(창업 도시 조성), 제도(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메가특구 지정·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재정지원·조세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예산심의를 통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정책금융, 기반시설 구축 예산 등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재정·금융 지원 기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 발표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민주당은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특별법·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메가특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기업 초과이윤 아냐” 李, 국민배당 논란 반박

“국가 초과세수 배당하겠다는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이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와 외신에서도 논란을 일으키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관계가 잘못 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가칭 ‘국민배당금’ 설계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뒤 한국 중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면서 12일 주식 하락의 원인으로 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을 지목했으며 13일에는 야권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은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국민배당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관련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 출범

장동혁 대표 “하나 돼야 할 때”
원팀 강조하며 보수 결집 호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때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야 국민도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며 원팀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시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

라며 “서로의 작은 차이는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아달라.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공동선대위원장인 신동욱·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박민식(부산 북갑)·이진숙(대구 달성)·박종진(인천 연수갑) 후보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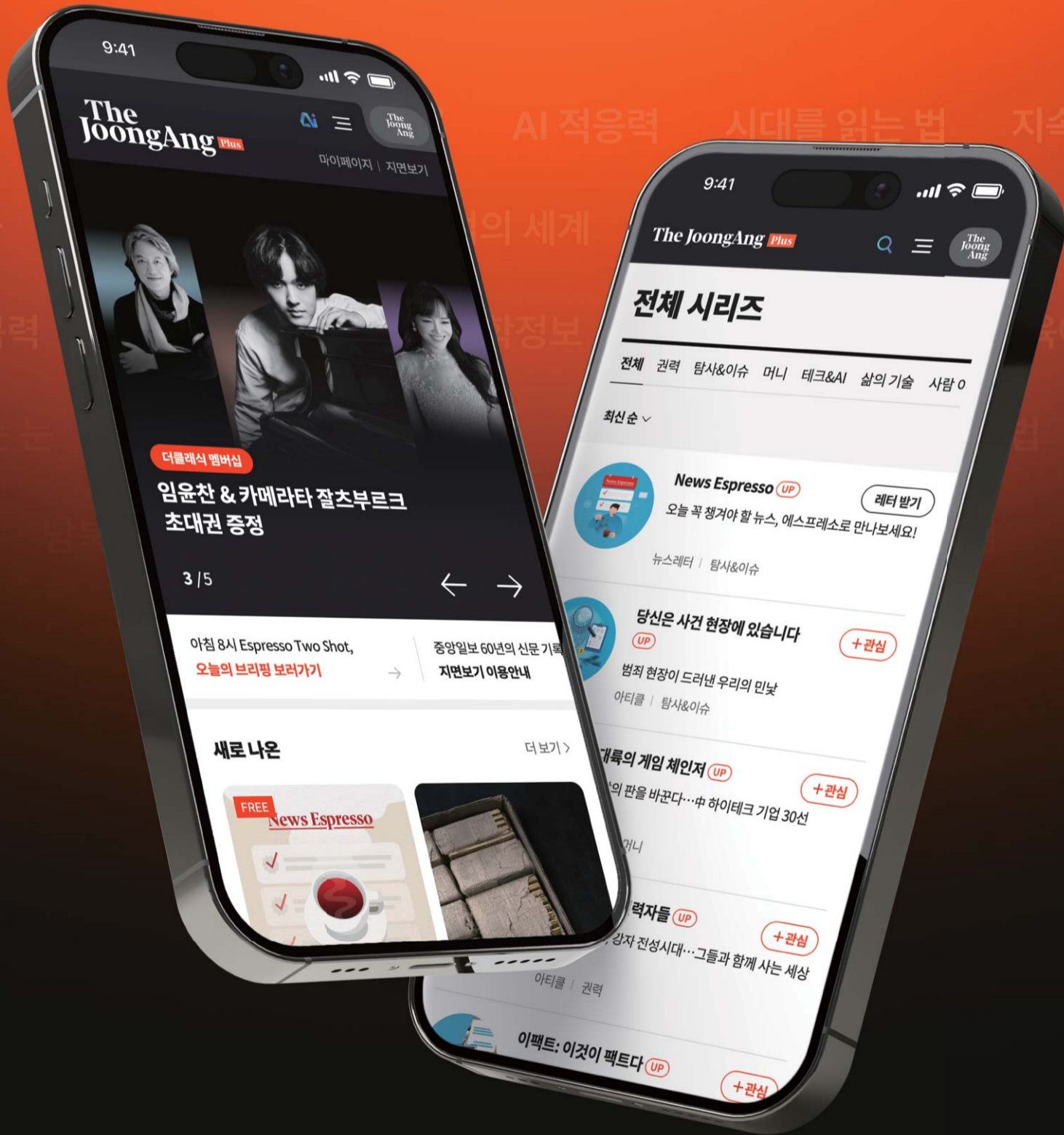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깊이 있는 지식이 한 곳에

당신의 [세상이] 깊어지는 중

프리미엄 지식 구독 플랫폼, 더중앙플러스



세상을 보는 눈

트렌드 세상만사

건강 정보 집콕력

트 세상

외교의 공식

AI 적응력

시대를 읽는 법

지속가능한 삶

육아

의 세계

정보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자력

취향

의 기술

클래식

지속가능한 삶

육아

의

의

의

의

The JoongAng Plus

더중앙플러스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확인해주세요



중동 평화협상 교착 국면... 원·달러 환율 1500원 위협

美 트럼프 '군사작전 재개' 언급
국내 원유 비축분 3개월치 불과
美 인플레이·금리 인하 가능성 등
고유가 장기화·유가 상승 요인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환전소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뒀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교착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중동사태'의 확산 우려가 커져서다.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도 늦어지는 만큼,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0.6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주간 종가보다 0.8원 오른 수준으로, 지난 4월 7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오전 중 환율이 장중 1499.80원까지 오르면서 달러당 1500원 선을 위협하는 등 달러 강세가 뚜렷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를 언급하면서 확산 우려가 확산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휴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상태(unbelievably weak)에 있다. (지금의 평화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수준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을 일컬어 "절대 수용 불가능(totally unacceptable)하다. (이란의 조건은) 쓰레기(a piece of

garbage)"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는 같은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프로젝트 프리덤을 통한) 선박 호위 작전은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했으나 휴전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하루 만에 이를 취소했는데, 해당 작전을 재개하고 이후 추가 군사작전에도 나설 수 있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나선 것

로 풀이된다.

종전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란 측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종전 조건으로 내건 미국과 종전 이후 별도의 협상을 요구하는 이란의 견해차가 분명해서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이란에 종전 조건으로 ▲핵무기 개발 포기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비축 농축 우라늄 반출 ▲핵시설 해체 ▲지하 핵 활동 금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 및 반출 등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해상봉쇄 해제 등 선제적 종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70%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대체 원유 수입 지원 및 비축량 공급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수출 및 소비를 고려한 비축분은 약 3개월분에 불과하다.

시장 예상치를 웃돈 미국의 인플레이션율도 원·달러 환율에는 위협 요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져서다. 미 노동통계국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8%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0.1%포인트(p) 높은 수치로, 지난 2023년 5월 이후 가장 가파른 전년 대비 상승이다.

전문가들은 전쟁과 고유가 영향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러나면서 달러의 상대적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4월 CPI가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라며 "유가 급등이 에너지 물가를 넘어 서비스 물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징후 가운데,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는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제한적 추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고유가 현상 장기화 혹은 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잠재해있다"라며 "미국내 물가 압력이 정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미래주거,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세요”

건설사, 홍보관 개관 이어져
삼성물산, 디자인그룹 SMDP 협업
'스위블' 조망특화 평면도 등 준비
현대건설, 핵심구조물 실물크기 구현
모베드 등 로보틱스 기술 선보여

건설사들이 앞다퉁 입지의 재건축 수주를 위해 홍보관을 줄줄이 열어 사업 제안은 물론 주거 신기술까지 선보이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수주를 위해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홍보관을 연다.

단지명으로 제한한 '래미안 일루체라'를 그대로 옮겨 놓은 축척 모형은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주거 단지의 모습을 선보이며, 구체적인 사업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1대1 상담 자리도 마련된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디자인 그룹 'SMDP'와 협업해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을 앞세운 설계안을 제안했다. 한강변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살려 조합원 46

명 모두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조망 시뮬레이션으로 각 세대에서 보이는 한강 조망과 인근 건축물과의 간섭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100%는 물론 일반 분양 87세대까지 한강 조망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기존 강남 한강변 아파트의 고질적인 과제였던 '북측 한강 조망'과 '남향 일조권' 사이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거실과 주방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스위블(Swivel)' 조망특화 평면도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금융조건으로는 사업비 전체를 한도 없는 최저금리로 책임 조달하고 ▲이주비 LTV 100% ▲HUG 보증수수료 '제로' ▲대출 없이 입주 시 분담금만 100% 납부 ▲계약 후 30일 내 환급금 100% 지급 등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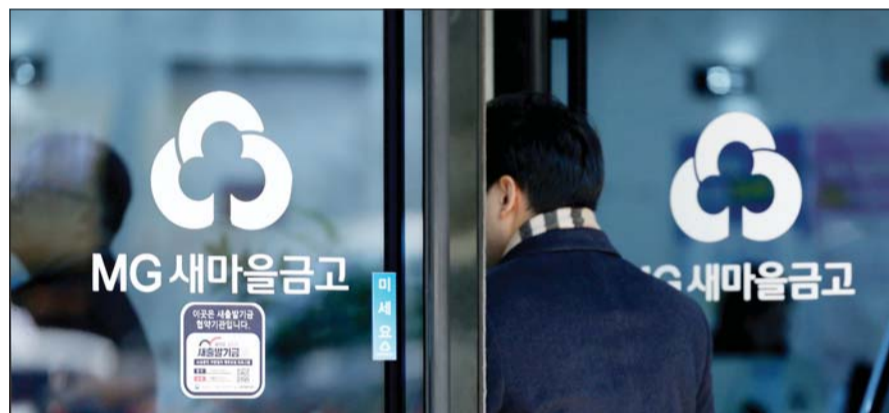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 홍보관으로 미래 주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관은 단지를 순환하며 모든 동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핵심 구조를 실물

크기로 구현했다. 냉난방과 공기질이 관리되는 실내 환경에서 산책과 러닝, 휴식이 가능한 '순환형 커뮤니티' 개념을 직관적으로 보여줬으며, 입주민 전용 이동 체계인 수요응답교통(DRT) 무인셔틀을 배치해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이동 설계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단지 내에 적용될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보틱스 기술도 선보였다. 모베드(MobED)와 나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실물 전시와 구동 영상이 결합돼, 단지 내 이동과 서비스, 안전 관리까지 확장되는 미래 주거 환경을 직관적으로 보여줬다. 단지 모형은 총 5175세대, 30개 동의 배치와 한강,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을 아우르는 구조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로만 볼 수 있었던 압구정3구역의 미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기획했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주거 단지로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모습. /뉴시스

상호금융, 3.61% 예금 금리로 수신 방어

증시 머니무브 흐름 대처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증시로 이동하는 돈의 흐름을 막기 위해 연 4%에 육박하는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수신 경쟁이 치열하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1년 만기 기준 정기 예금 평균 금리는 3.25%다. 올해 초 예금 평균 금리가 3%를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가장 높은 정기예금 금리는 연 3.61%다. 지난 2월 업계 최고 예금 금리가 3.16%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개월 만에 0.45%포인트(p) 오른 셈이다.

연 3.60%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DH·HB·JT저축은행 등을 위주로 총 8개 예금 상품이 연 3.60%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 3.58% 상품도 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2~3% 수준에서 형성돼 왔다. 연말·연초 만기 자금 유치를 위한 수신 경쟁이 강화되는 시기에 최고 금리는 대체로 연 3.15~3.17% 수준에서 머물렀다.

상호금융권도 예금 금리를 일제히 높이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연 3.6~3.8% 사이의 정기 예금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신협에서는 포산·경동·효천신용협동조합이 연 3.7% 금리의 유니온정기예탁금을 판매 중이다. 성삼우리신용협동조합도 연 3.62% 금리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연 4%가 넘는 저축성 상품도 있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연복리 4% 고정이율이 적용되는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상품을 출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OK저축은행이 최대 연 4.0% 금리를 제공하는 'OK이자도받는상조적금' 상품을 내놨다.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넘어서면서 증시로 빠지는 자금을 막기 위해 수신 경쟁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은 전월 대비 각각 2384억원, 7조3177억원씩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 있다"면서 "시중은행이 증시로 이동하는 자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또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 금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나은행, 퇴직연금 비대면 ETF 개편

하나은행이 손님의 쉽고 빠른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퇴직연금 비대면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하나은행은 주식회사 코스콤과의 제휴를 통해 국내 대표 ETF 플랫폼인 'ETF CHECK'를 연계했다. 이를 통

해 손님들은 ETF 상품의 실시간 호가와 복잡한 시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했다. 손님이 보유한 퇴직연금 ETF가 미리 설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즉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을 도입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놓

치지 않고 수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관계자는 13일 "이번 개편은 손님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퇴직연금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 정보 제공과 거래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손님 중심의 비대면 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중한 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조선업계, '해양플랜트' 힘 신는다 美·브라질 등 글로벌 수주 본격화

한화오션 에너지기업 점점 확대
HD한국조선해양 매출 183% ↑
삼성중 수주목표 82억달러 설정

과거 대규모 적자의 원흉이었던 해양플랜트 사업이 국내 조선업계의 실적 반등을 이끌 동력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해양 부문 수익성이 확인된 데 이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최종투자결정(FID)이 가시화하면서 한동안 멈춰있던 발주 사이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미국 조선해양 컨퍼런스(OTC) 2026'에 참가해 NOV, 커먼웰스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접촉하며 해양플랜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싱가포르 상부구조물 업체 인수와 에너지플랜트 유닛(EPU) 신설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 한화오션은 오는 2027년 이후 2년마다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3기를 건조하는 체제로 확대하며 사업 안정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수치상으로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곳은 HD한국조선해양이다. 올해 1분기 해양플랜트 부문 매출 4578억원, 영업이익 8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3.8%, 1212.1% 증가했다. 이는 멕시코 트리온(Trion) FPU와 중동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

루야(Ruya) 프로젝트의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인식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중공업 역시 올해 해양 부문 수주 목표를 82억 달러로 설정하고, FID가 임박한 델핀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등 대형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를 정조준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ZLNG, 캐나다 시더 등 FLNG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삼성중공업은 이월 물량과 신규 발주를 포함해 총 4기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해양플랜트는 국내 조선사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겼다. 지난 2014년 국제 유가 급락으로 발주가 끊기고 프로젝트 취소와 인도 지연이 겹치면서 손실이 크게 불어났다. 통상 해양플랜트의 손익분기점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보고 있다.

최근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중단됐던 심해 유전 개발이

재개되며 흐름은 반전됐다. 브라질·가이나·수리남 등 남미를 중심으로 FPSO와 FLNG 발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는 글로벌 해양 석유·가스 장비 시장이 지난해 950억3000만달러에서 오는 2035년 1425억7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사들은 과거의 저가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 위주의 선별 수주로 전략을 전환했다. 동시에 유사 프로젝트를 반복 수행하며 설계와 공정 관리 역량을 축적해 실행 리스크를 낮추고 있다.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채굴부터 하역까지 수행하는 복합 시스템인 FPSO와 FLNG는 적당 최고 4조 원에 달하는 초고가 설비다. 좁은 해상 공간에 대규모 플랜트를 구현하는 설계·제작 역량은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어 향후 수주 경쟁에서도 고지를 점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도 지연과 설계 변경 등 리스크 관리에 취약했으나, 최근에는 고부가 프로젝트들이 정상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구조로 체질이 개선됐다"며 "글로벌 투자가 지속될 경우 해양 부문의 수익성 개선 속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9조 '샤힌 프로젝트' 완공 임박 석화업계, 구조재편 선행 복잡

울산 NCC 감산·설비통합 논의 제자리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공급 과잉 해소 위한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울산은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산과 설비 통합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완공을 앞두고 신규 공급 부담이 커진 데다 주요 업체별 원료 조달 방식과 생산 구조가 달라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는 오는 6월 말 기계적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에쓰오일은 올해 하반기 시운전을 거쳐 내년 초 상업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9조원 이상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대 규모 투자 사업이다.

대규모 신규 설비 가동을 앞두고

울산 지역 구조 재편 논의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울산은 에쓰오일과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등 주요 업체들이 각각 독립적인 원료 조달·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대산·여수처럼 합작회사 설립이나 설비 통합 방식의 감산 논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 수익성 개선도 구조 재편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란 전쟁 이후 원재료와 제품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저가 원재료 투입에 따른 레깅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당장 설비 감축이나 통합에 나설 유인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울산은 에쓰오일과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의 원료 조달과 생산 구조가 달라 한쪽이 먼저 설비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차그룹, 하반기 자율주행 기술 실증

국토부, 광주시 등 업무협약 체결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성장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사업에 나선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실제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주행 데이터를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를 공개하며 기술 신뢰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도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당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테슬라 등 글로벌 업체들과 치열한 자율주행 기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삼성화재,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라이드플렉스 등과 함께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그간 축적된 자율주행 역량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 광주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시작하며 해당 차량에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설루션 '아트리아 AI'가 탑재된다.

/양성운 기자

다양한 도로 조건을 갖춘 광주 내에서 실증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민간이 축적해 온 자율주행 기술이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협약에 참여한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자율주행 팀'이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규모 차량 운영과 데이터 수집,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실증 사업은 올해 하반기 광주 광산구, 북구, 서구 일부 지역 등에서 수행된다. 내년 중에는 서구 남은 지역과 남구, 동구까지 지역을 넓혀 광주 내 5개 기초구 전역에서 이뤄진다.

현대차·기아는 아트리아 AI와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셔클을 기존 양산차에 적용한 자율주행 차량을 200여 대 제작해 실증 차량으로 내놓는다.

공공부문에선 국토교통부가 사업 총괄을 맡아 자율주행 관련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광주광역시는 기업 상주 공간, 차고지, 충전설비 설치 등 실증 인프라 지원을 맡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 지원과 기술 검증 성과를 확인한다.

기아, 日 전동화 시장 도전... 'PBV' 전면에

(목적기반모빌리티)

PV5 출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고객 니즈에 맞춰 장기적 신뢰 구축"

기아가 첫 전용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모델 'PV5'를 앞세워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난 1992년 일본 시장에 진출해 2013년 '기아 재팬'을 청산한지 13년만에 재도전이다. 또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앞세워 일본 승용 전기차 시장에 재진입한 것과 달리, 기아는 첫 전용 PBV 모델인 PV5를 앞세워 업무용 전동화 시장을 공략한다.

기아는 13일 일본 도쿄 기아 PBV 재팬 도쿄니시 직영점에서 '기아 PV5 일본 시장 공식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 김상대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 타지마 야스나리 기아 PBV 재팬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부사장은 "기아의 상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일본 고객 니즈에 맞춰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전동화 전환을 지원하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는 일본에서 중소형 EV 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실제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판매 비중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탄소 중립 정책을 내놨다.

기아는 차량의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



김상대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왼쪽)과 타지마 야스나리 기아 PBV 재팬 대표이사가 13일 일본 도쿄 기아 PBV 재팬 도쿄니시 직영점에서 'PV5 일본 시장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각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차량 구조와 첨단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PV5는 차체, 도어, 테일게이트 등 주요 부품을 모듈화한 '플렉서블 바디 시스템'이 적용돼 비즈니스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회전반경 5.5m로 일본의 좁은 도로 환경에 적합하다.

전기차 특화 사양인 V2L(외부전력공급)과 V2H(가정전력공급)를 지원해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 전력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PV5는 선택권이 제한적인 일본 전동화 상용차 시장에서 새로

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는 PV5패시저와 카고 모델을 선보인 뒤 PV5 WAV(휠체어 탑재 가능 차량)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아는 일본의 유력 종합상사 소지츠와 협력해 현지 유통망을 구축했다. 양사는 지난해 4월 일본 내 PBV 사업 전개를 위한 소지츠 100% 출자의 신규 법인 '기아 PBV 재팬'을 출범했다. 기아 PBV 재팬은 현재 도쿄니시 직영점을 포함해 총 7개소의 딜러샵과 52개소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내 딜러샵 11개소와 서비스센터 100개소 체제를 구축하고 정비, 금융, 충전 인프라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이노, 1분기 흑자전환... 영업이익 2.1조

직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632% ↑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4조2121억원, 영업이익 2조1622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조655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직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3.1%, 영업이익은 632.0% 늘었다.

이번 실적 개선은 유가 상승기에 과거 낮은 가격에 들어온 원유가 시차를 두고 원가에 반영되면서 정유사업 수익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원유 도입과 석유제품 판매 사이에는 운송·

저장·정제 과정에서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는데 유가가 급등할 경우 제품 판매 가격은 빠르게 오르는 반면 원가에는 이전에 매입한 원유 가격이 반영돼 레깅 효과가 나타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유가 상승에 따른 레깅 효과 반영과 재고 관련 이익 증가로 정유사업을 영위하는 SK에너지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며 "다만 레깅 효과와 재고 관련 이익은 회계상 반영되는 숫자로 향후 유가 하락 시 줄어들거나 소멸될 수 있는 일시적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중기부 장관·차관, 창업·지역산업 현장에서 ‘정책 해법’ 찾는다

청년·조선·인쇄업 애로 청취
장관, 창경센터 대표들과 간담회
중앙대 찾아 청년창업 소통 이어가

노 차관, 해양모빌리티 포럼 참석
“조선업 경쟁력 강화 적극 뒷받침”

이 차관, 파주 인쇄소공인 간담회
업계 애로 듣고 지원 방안 논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이 1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를 찾아 정책 해법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오전엔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국 19개 창경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모두의 창업’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노용석 제1차관은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열린 ‘부울경 미래 해양모빌리티 상생혁신 포럼’에 참석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경기 파주에 있는 파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인쇄업계 소공인들과 대화 자리를 가졌다.

한 장관은 창경센터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창경센터는 정부의 창업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성구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거점”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창경센터가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창경센터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등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거점기관으로, 지역 창업열풍 확산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현장에서 이끌고 있다.

창경센터 대표들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운영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지역 창업 허브이자 운영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창경센터의 지역 창업거점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창경센터는 중기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지역 핵심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다양한 창업자원을 연결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자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3만 명을 돌파했다.

중기부는 향후 전국 100여 곳의 운영기관에서 접수된 창업 아이디어를 면밀히 심사해 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상담·멘토링(보육)·창업활동자금·인공지능(AI) 솔루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션발자게도 제도권 상담 및 멘토링(보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 마감은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다.

한 장관은 충남대(4월13일), 경상대(4월17일), 호서대(4월22일), 고려대(4월30일), 대구대(5월6일), 전남대(5월8일)에 이어 이날 7번째로 중앙대에서

대학생들과 창업을 주제로 소통했다.

한 장관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부울경 미래 해양모빌리티 상생혁신 포럼은 중기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방향에 맞춰 조선 분야의 친환경 규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노용석 차관 외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 관련 중소기업 대표와 전문가,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의 담당 국장과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두루 참석했다.

노 차관은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력 생태계에 달려 있다”며 “중기부도 스마트공장, 연구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지역 협력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친환경·스마트 조선 전환 대응, 공급망 안정화, 핵심 기자재 국산화, 숙련인력 유지 등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소공연

소상공인 中 진출 지원

상하이서 시장개척단 펼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중국 시장 진출 모색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6~9일 중국 상하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중국시장개척단’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한중연합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서 소공연은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업종단체 단체장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가해 상하이 일원에서 투자상담회 참석, 현지 한국관 탐방, 대규모 박람회 참관, 현지 시장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상하이 청포구 중국국제 수입박람회 지휘부에서 상하이의 행정구역인 서경진의 소호평 당위부서기, 오정봉 부진장 등 고위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상하이 서경의 투자유치 방안 PT와 함께 상하이 현지 진출을 위한 다양한 상하이시의 지원방안이 소개됐다.

/김승호 기자

효성벤처스, 딥테크 투자로 미래 먹거리 확보 속도

바이오·뷰티·공간컴퓨팅 분야 확대
AAC홀딩스·아임뉴런에 투자 집행
산업용 공간컴퓨팅 딥파인도 포함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효성벤처스가 바이오·뷰티·공간 컴퓨팅 분야 스타트업 투자를 잇따라 단행하며 딥테크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재무적 투자를 넘어 AI 기반 신약 개발부터 산업용 디지털 전환 기술까지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효성벤처스는 지난 12일 뷰티 솔루션 기업 ‘AAC홀딩스’와 AI 기반 신약 플랫폼 기업 ‘아임뉴런’에 대한 투자를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산업용 공간 컴퓨팅 기업 ‘딥파인’에도 투자를 집행했다.

아임뉴런은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물질 전달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아임뉴런의 약물 전달 플랫폼을 활용하면 약물의 뇌혈관 장벽(BBB) 통과율을 높일 수 있어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다. 지난 2월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기

술력을 입증했다.

AAC홀딩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메디컬·뷰티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피부 상태는 물론 생활 습관 등을 반영해 고객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며, 단순 시술이 아닌 종합적인 관리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딥파인은 산업 현장을 3D 디지털 데이터로 구현하는 공간 컴퓨팅 기업이다. 일반 모바일 기기로 실내 공간을 정밀한 3D 지도로 구현할 수 있으며, 드론·스마트글래스 등과 연동해 작업 효

율을 높일 수 있다. 최근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기존 기업 시스템과도 쉽게 연계할 수 있어 향후 효성그룹 제조 현장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효성벤처스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바이오, 뷰티, 공간 컴퓨팅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기술 중심 투자 기조에 발맞춰 국내 딥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처현정 기자 hyeon@



현대자동차·기아 양계 사옥. /양성운 기자

현대차·기아

OIN 2.0 가입, 특허망 확대

OSS 분쟁리스크 선제 대응

현대자동차·기아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관련 특허 분쟁에 선제적 대응하며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 ‘OIN(Open Invention Network) 2.0’에 가입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OIN은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특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아마존, 구글, 도요타 등 세계 주요 IT·자동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5년 OIN 1.0에 가입한 현대차·기아는 특허 보호 범위가 확대된 OIN 2.0에도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높이면서도 특허 분쟁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 우려를 줄여준다고 현대차·기아는 설명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가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은 물론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진공·LG엔솔, K-배터리 유망기업 발굴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한다.

중진공은 LG엔솔과 ▲공정불량 검출 기술 ▲배터리 상태 실시간 진단 예측 시스템 ▲차세대 공정·설비 기술 ▲배터리 셀 저항 감소 기술 4개 분야에 걸쳐 ‘K-배터리 오픈 이노베이션(OSS)’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협력 관계를 넘어 역량 있는 비협력사를 대상으로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 수요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솔루션을 연결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LG엔솔과의 공동 기술 검증(PoC)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사업화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지원 투자 협의 등 후속 협력이 검토될 예정이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및 민간의 지역선도기업 대출 등을 연계해 선정기업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이다.

/김승호 기자

한진, 中 海외판로 물류 지원

역지구 수출 경쟁력 제고

한진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든든한 물류 지원군으로 나선다.

한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2026년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사업’은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주도 사업이다. 운영기간은 올해 12월까지

로, 글로벌 역지구 플랫폼 등을 통해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여 현지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한진은 그동안 축적한 글로벌 물류 노하우와 전 세계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별 성장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한진은 이번 사업에 국내 물류사 중 최대 규모의 통관 시설을 갖춘 ‘인천공항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와 지난 2025년 12월 새롭게 개소한 ‘유럽 풀필먼트 센터’를 전격 투입한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게임사 1분기 실적

脫리니지·아이온2 흥행 ‘포트폴리오 다변화’ 성과



매출 5574억, 영업이익 1133억 기록
아이온2 매출 1368억, PC게임 3184억
MMORPG 의존도 낮춰 사업구조 변화

엔씨가 ‘아이온2’ 흥행 효과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기존 MMORPG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캐주얼·신규 IP 확대 전략도 본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씨는 13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574억원, 영업이익 1133억원, 당기순이익 15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38%,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0%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11월 출시한 ‘아이온2’가 이끌었다. 아이온2 매출은 136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PC 게임 매출은 3184억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리니지 클래식 흥행도 실적 상승을 뒷받침했다. 리니지 클래식은 출시 90일 만에 누적 매출 192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엔씨가 최근 추진해온 ‘포트폴리오 다변

화’ 전략이 실적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씨는 MMORPG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캐주얼 게임과 신규 IP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왔다.

실제 모바일 캐주얼 매출은 355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사인 리후후와 스프링컴즈 실적이 처음 연결 반영되면서 비MMORPG 분야 매출 비중도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엔씨가 기존 ‘리니지 중심 회사’ 이미지에서 벗어나 사업 구조 변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매출 비중 확대도 눈에 띈다. 전체 매출 가운데 해외 비중은 42%로 전년 동기 35%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한국 58%, 아시아 27%, 북미·유럽 등 기타 지역 15%다.

모바일 게임 부문에서는 리니지M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한다. 엔씨는 북미·유럽·일본·남미 등에 아이온2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규 IP인 ‘신더시티’, ‘리밋 제로 브레이크스’, ‘타임 테이커즈’도 글로벌 테스트를 거쳐 순차 공개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영업이익 206.9% ‘굉충’ 신작흥행·외형성장은 과제



매출 1447억, 영업이익 51억 기록
‘야구게임·서머너즈 워’로 수익성 개선
하반기 신작 성과, 실적 방향성 가늠

컴투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크게 늘리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매출은 전년 대비 줄어든 만큼 하반기 신작 성과가 외형 성장 회복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컴투스는 13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447억원, 영업이익 5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별도 기준 매출은 1229억원, 영업이익은 77억원으로 집계했다.

이번 실적은 기존 장기 흥행작과 스포츠 게임 라인업이 떠받쳤다. KBO와 MLB 기반 야구 게임은 시즌 개막 효과와 선수 업데이트, 프로모션을 앞세워 1분기 실적에 힘을 보탤다.

출시 12주년을 맞은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도 ‘반지의 제왕’ 컬래버레이션과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글로벌 이용자 기반을 유

지했다.

다만 외형 성장에는 과제가 남았다.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당기순손실도 발생했다. 수익성 개선만으로는 성장 회복을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하반기 신작 흥행 여부가 컴투스의 실적 방향성을 가늠 전망이다.

컴투스는 3분기 AAA급 MMORPG ‘제우스: 오만의 신’을 국내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관과 대규모 전장, 고품질 그래픽을 앞세운 신작이다. 연내에는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기반 게임 ‘도원 암구 Crimson Inferno’도 선보일 계획이다.

외부 IP 기반 라인업도 확대한다. 컴투스는 ‘가치아쿠타: The Game’, ‘전지적 독자 시점’, ‘A랭크 파티’ 등 글로벌 콘텐츠 IP를 활용한 신작을 준비하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컴투스 관계자는 “컴투스는 야구 게임과 서머너즈 워라는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을 보유했지만, 매출 반등을 위해서는 신작 성과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MMORPG와 IP 기반 신작이 기존 타이틀 중심의 실적 구조를 얼마나 넓힐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KT, AI 교육 실습도구 ‘AIDU’ 무료 배포

데스크톱PC 또는 노트북에 설치 가능

KT가 인공지능(AI) 실습 도구를 교육 현장에 지원한다.

KT는 ‘AIDU’를 PC용 설치형 앱으로 무료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AIDU(에이아이유)는 코딩 비전공자를 위한 인공지능(AI) 교육 실습 도구다. 일반 사무직 직원들의 AI 교육을 위해 KT가 2020년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데이터 분석부터 AI 모델 학습 평가 등 AI 모델링 전 과정을 수행한다.

데스크톱PC 또는 노트북에 설치해

용한다. 윈도, 맥OS, 리눅스 등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통신망 접속이 어려운 곳에서도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최신 환경에 맞춰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사용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인천광역시 상인전문학교 최정원 교사는 “AIDU 도입 후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이 AI의 문제 해결 과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구조화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이종형 AICE기획팀 상무보는 “AIDU 무상 배포를 통해 교육의 영역뿐



노트북에 설치된 ‘AIDU’를 통해 AI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모습. /KT

아니라 업무의 영역에서도 AI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용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AIDU를 지속 고도화해 전국민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

SKB, 교육기관에 5기가 PoE 스위치 공급

(전원통합형)

엔에스티정보통신과 협력

10Gbps급 업링크 포트 2개 탑재

SK브로드밴드는 교육기관에 5기가 PoE 스위치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5기가 전원통합형(PoE) 스위치 개발을 위해 통신장비 업체 엔에스티정보통신과 협력했다. PoE는 랜선 하나에 인터넷 신호와 전기를 함께 흘려보내 배선을 효율을 높이는 전원 공급 방식이다. 별도의 전원선 없이도 인터넷 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 네트워크 장비가 많은 환경에 적합하다.

특히 최근 학교 내 무선 기기 사용량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망 고도화사업 기

준에 맞춰 설계했다.

상위 망으로 전달하는 백본 스위치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10Gbps급 초고속 업링크 포트 2개를 탑재했다. 기존 1Gbps 속도를 지원하는 SFP보다 성능을 높인 버전이다. 이 밖에 카메라 등 기기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원을 자동으로 재시작해 원격 복구가 가능한 ‘PoE Recovery’ 기능도 탑재했다.

이에 따라 트래픽 병목 현상을 줄이고 트래픽 처리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기존 학교용 PoE 스위치는 초당 2.5기가비트(2.5Gbps)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반면 새 장비는 24개 포트에서 5Gbps를 동시에 지원한다. 또 유지보수 기능이 관리자가 교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 해결해 관리 운영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조민선 기자

LG헬로비전, ‘사내 AI 에이전트 해커톤’ 성료

AX 문화 정착·업무 생산성 향상
현장 실무에 결과물 투입 예정

LG헬로비전은 임직원 대상 ‘사내 AI 에이전트 해커톤’을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사 내 인공지능 전환(AI) 문화를 정착하고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획됐다.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복잡한 데이터 분석 업무를 인공지능에 맡겨 실무자가 전략적인 판단과 기획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월 한 달간 총 203명의 임직원이 인공지능(AI) 교육을 받고 업무용 AI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과제를 83개로 추리고 이 중 8개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최종 수상작 중 인사사이트 리더는 자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뒷줄 왼쪽 세번째)와 임원진 및 수상자들이 29일 LG헬로비전 상암 본사에서 진행된 해커톤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 하고 있다. /LG헬로비전

사 렌탈 직영물에서 상품별 수요 변화와 마케팅 정보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준다. 이 밖에 B2C 영업 리스크 분석과 로컬광고 원스톱 자동 기획 및 제작 등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결과물은 조직별로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현장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는 “임직원 이 직접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며 혁신의 주체가 된 이번 해커톤은 AX 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기점”이라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AI 혁신을 적극 지원해 기업 체질을 AX 중심으로 개선하고 미래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넷마블, 블소 레볼루션에 ‘언리얼 5’ 적용

단순 콘텐츠 추가 아닌 ‘재출시급’
최신 엔진으로 그래픽 등 대폭 강화

넷마블이 장기 서비스 모바일 MMORPG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의 게임 엔진을 전면 교체하며 반등 카드 꺼내들었다. 출시 8년차 게임에 언리얼 엔진5를 적용하는 대규모 리빌드에 나서면서 장수 게임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넷마블은 13일 오후 7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NEXT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 온라인 쇼케이스를 공개했다. 이번 쇼케이스 핵심은 언리얼 엔진5

기반 업데이트다. 넷마블은 기존 언리얼 엔진4 기반으로 운영해 온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을 최신 엔진으로 교체하며 그래픽과 전투 환경 전반을 업그레이드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업데이트를 단순 콘텐츠 추가가 아닌 사실상 ‘재출시급 개편’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MMORPG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기존 장수 게임의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언리얼 엔진5 적용으로 그래픽 품질과 광원 효과, 캐릭터 표현력 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코스피 1만 간다” 외치더니… 외국인, 반도체 24조 매도

삼성 11조·하이닉스 10조 팔아
일부 증권사, 실적 둔화 가능성 언급
“AI 열풍, 닷컴버블과 비슷” 경고도

‘코스피 1만까지 갈 수 있다’고 외치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장바구니에서 털어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7~13일까지 5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24조원을 순매도했다. 반도체주를 집중해서 처분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여전히 “코스피가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있다”, “코스피 1만도 가능하다”고 하고 외치고 있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걸까?

◆반도체 고평가·‘S’공포에 ‘팔자’

‘AI(인공지능)발 반도체 고평가’가 주범으로 지목된다. 최근 국내 증시 랠리는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최대 수혜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톱이 꼽히며 시장을 주도했다.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날도 SK하이닉스는 7.68% 오른 197만6000원, 삼성전자는 1.79% 뚫 28만4000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최근 BNK투자증권, 키움증권이 향후 실적 둔화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낮추는 등 증권가 일각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내놓고 있다.

14일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 회담도 외국인 투자의 결집도로 꼽힌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행정부가 메모리 부족에 따른 AI 데이터 센터 구축 지연 우려로, 14nm와 7nm



코스피가 7844.01 포인트로 증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전 거래일보다 5000원, 14만1000원 오른 28만4000원, 197만6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장비(에 대한) 화홍 및 HLMC(의 구입이) 비공식 면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핵심은 비공식이라는 점에서 다음은 SMIC, 그다음은 CXMT·YMTC로 확장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다면 “한국 메모리에는 부정적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간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다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16%, 0.71% 하락했다. 특히 기술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01% 급락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붐으로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알파벳 두 글자(AI) 주체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이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999~2000년 거품의 마지막 달에 도달한 느낌”이라고 했다.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폴 튜더 존스 튜더인베스트먼트 창립자도 전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AI 붐에 기반한 뉴욕증시 강세장이 1~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현재 뉴욕증시가 닷컴버블로 정점을 찍기 1년 전인 1999년과 비슷한 분위기라며 강세장이 끝날 때 주가 하락 폭이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이 주목을 받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련 내용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외국인들이 최근 5일간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11조3891억원어치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 순매도액도 10조29억

원으로 둘째로 많았다.

◆모건스탠리 “만 간다”, 빗투 리스크 확대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인 매도세는 차익 실현 성격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한국, 미국 증시 모두 주도주인 반도체주의 단기 과열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급 충격은 발생하겠지만, 이들 주가의 추세가 전환했다는 식의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부담과 상승 피로 누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 출회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IB들도 목표주가를 올려잡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가 구조적인 성장과 개혁 지속성으로 인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코스피 전망 범위를 6500~9500으로 내놓았다.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연말까지 1만도 가능하겠다고 봤다. 약세장 시나리오에서 하단은 6000으로 전

망했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은 경기에 민감하고 (산업·자재 등) 물리적 자산 비중이 크다고 인식되며 코스피에 불리한 요소가 됐지만, 정보기술(IT)을 비롯해 에너지안보·방산·재건·자동차 및 로봇 등 산업 사이클이 다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이번 전망의 근거를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코스피의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AI 반도체 수요 호조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올해 이익이 전년 대비 220% 급증할 것”이라며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 역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올 들어 한국 증시 상승세가 워낙 가장 가팔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빗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빗투’ 규모가 11일 기준 35조9985억원으로 불어나면서, 향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증권사가 담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하루 반대매매액이 올 들어 최고치인 694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의 일간 평균 변동률 확대되며 ‘물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8.57% 오른 76.15를 기록했다. 지난 3월 4~5일 기록(각 80.85·83.5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분기 1조 클럽’ 연 미래에셋증권… 기대와 경계 공존

스페이스X 투자 가치 상승 핵심 요인
하나·NH투자증권 등 목표주가 높게 제시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는 투자 의견 ‘중립’
‘글로벌 투자 플랫폼’ 체질 개선 주목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원을 기록했다. ‘분기 1조원’이라는 상징적 실적을 넘어 스페이스X(SpaceX) 투자 성과를 계기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10여년간 추진해온 글로벌 투자 전략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대 경쟁사인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일부 증권사는 “주가가 이미 미래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며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해 미래에셋증권의 기업가치를 둘러싼 증권가의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드러났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의 목표주가를 9만5000원, 유안타증권은 9만3000원, NH투자증권은 11만원, 키움증권은 9만원으로 제시하며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증권사들은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과 홍콩 글로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출시, 미국 현지 증권사 인수 추진 등을 미래에셋증권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1조199억원을 기록하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미래에셋증권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 증권사가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자기자본투자(PI) 부문에서 약 8040억원의 평가이익이 반영됐으며,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 등 해외 혁신기업의 기업가치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이스X는 미래에셋증권의 혁신 기업 투자 전략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꼽힌다. 현재 장부가만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며, 미국 상장 시 최대 1조3000억원의 추가 평가이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실적 1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눈길을 끈 것은 최대 경쟁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래에셋증권의 혁신기업 투자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26년 예상 추가순자산 비율(PBR) 2.78배를 근거로 투자 의견 ‘중립(Hold)’을 유지했다.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최근 주가 급등으로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판단이다. SK증권, iM증권, LS증권, 다올투자증권 등도 비슷한 이유로 ‘중립’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비상장 기업을 아우르는 혁신기업 대상 투자가 다변화되고 있고, 관련

수익이 견조하게 발생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2026년 예상 추가순자산 비율(PBR)이 2.78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증권업계 1·2위를 다투는 대표적인 경쟁 구도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한국금융투자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미래에셋증권에 ‘중립’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의도에서는 양사의 평가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시각차의 본질을 단순한 실적 경쟁보다 사업 모델의 변화 가능성에서 찾고 있다. 박현주 박현주 회장이 10여년간 추진해온 글로벌 투자 전략이 일회성 평가이익에 그치지 않고 홍콩과 미국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이어질 경우, 미래에셋증권의 기업가치는 기존 국내 증권사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스페이스X 투자 수익이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며 “그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 논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올해만 29개 늘었다 순자산 1조 ETF 96개

국내 증시 훈풍 효과

순자산이 1조원을 넘는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이 100개에 달하고 있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증가 기준 순자산 1조원 이상인 ETF는 모두 96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ETF 종목 1099개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말 67개에서 29개 종목이 ‘순자산 1조원’ 대열에 합류했다.

순자산 1조원 이상 ETF 비중도 지난해 말 1058개 중 67개(6.3%)에서 2.4%포인트(p) 증가했다. 이 중 국내 주식형 ETF 43개가 1조원을 넘어 96개 가운데 44.7%를 차지했고, 해외주식형이 22개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 ETF는 작년 말에는 각각 23개와 19개가 순자산 1조원을 넘어 4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1일 기준 해외주식형이 3개 늘어난 데 반해 국내주식형은 20개가 증가했다.

이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국내 증시 상승이 올해 들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내주식형 ETF로 자금이 대폭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지수가 올들어 각각 8.2%, 13% 오르는 동안 코스피는 지난 11일까지 상승 폭이 85%에 달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농촌 에너지 자립 넘어 수익화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드라이브

농식품부 장관, '솔바우 마을' 방문
농업 에너지 대전환 실현한 마을
영농형태양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전국 각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 독려에 나선다. 특히 주민·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초점을 두고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사업의 본보기가 될 한 지역을 방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3일 강원 춘천 사북면 송암리에 위치한 솔바우 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시해, 이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 선도 모델로 꼽힌다. 이른바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100%) 에너지 자립 마을'이다.

솔바우 마을은 농촌 주택 및 농업 생산에 필요한 소요 전력(706MWh)의 96%(686MWh)를 자립하는 데 성공했다. 농식품부가 중장기 추진을 검토 중인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을 이미 달성한 사례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하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TF(전담반)' 가동을 개시했다. 이어 이달 7일에는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에너지 전환 성공사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살핀 것. 지역 내 추진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극복 과정 등 현장의 목



전남 영광에 조성된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뉴시스

소리를 수렴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날 찾은 마을발전소에서 "주민 주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해당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는 또 하나의 햇빛소득마을 성공 사례를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지역균형 발전과 농업·농촌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농지를 유지하면서 소득 향상에 도 기여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법'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에너지 자립, 농업 생산 분야의 에너지 전환 및 고효율화 전략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암리 발전소는 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농지 전용을 통해 연 657MWh(메가와트시)의 전력 생산 설비를 갖추고 연간 1억 원가량의 발전 수익 낸다. 이를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재단 기부 ▲노인동행택시 운영 ▲우유배달 등 공동사업에 활용 중이다.

송 장관은 솔바우지역 친환경 완전미 가공시설도 방문했다. 솔바우영농조합법인의 홍성수 대표는 "중동전쟁을 접하고 에너지 자립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졌다"며 "현재 연간 전기사용량의 55%를 자급하고 있는데 이를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현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과정에서의 어려움·극복과정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도 제시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다시 찾는 어촌 만든다" 해수부, 휴양마을 4곳 선정

노후화 시설, 고품격 숙박시설로 개선
확정된 마을 2년 동안 총 8억 지원

낙후된 어촌에 현대식 휴양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도시민 등이 다시 찾고픈 곳으로 거듭나게 하는 정책사업이 최근 한창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2026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대상지에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속초 장사마을 ▲전남 함평 석두마을 ▲경남 거제 계도마을 ▲경남 남해 문항마을이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지난 2015년 이후 추진돼 왔고, 최근 들어 크게 변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촌 마을의 노후화된 체험장, 숙박시설을 최신 트렌드에 걸맞는 고품격 숙박 시설로 전면 개선하는 사업이다.

남해군 유포마을의 경우, 고도화사업을 통해 소규모·가족형 숙박시설을 조성했다. 이후 체류형 관광객의 소비가 늘면서 지난해 기준 마을 관광소득이 100%가량 늘었다.

올해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어촌 마을 18곳이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가 포

함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중 4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된 18곳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원이 지원된다.

속초시 장사마을은 업무와 휴식을 함께 하는 위케이션에 특화된 숙박환경을 조성해 단순 체류를 넘어 지역과 교류하고 어촌생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함평군 석두마을은 기존 카라반을 리모델링하고 글램핑장을 새롭게 만든다. 거제시 계도마을은 낚시객들을 위해 노후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남해시 문항마을은 노후된 숙박시설을 개선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생태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모색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다시 찾고 오래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색을 살린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숙박환경 및 관광 콘텐츠 개선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9~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한 '농협인삼 런칭 행사'. /농협

K-인삼 세계로... 농협, 이스탄불서 설명회

유통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 참석

농협이 올해 K-인삼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해외 각지에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우리 인삼의 품질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현지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설명회를 가졌다.

13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9~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한국 농협인삼 런칭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안성인삼농협과 위음 튀르키예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한국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현지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튀르키예 농무부 관료를 비롯해 주이스탄불 대한민국 영사관, 현지 미디어·유통업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은 한국 인삼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과 효능을 소개하고, 현지에서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 등을 타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용 둔화에 '청년뉴딜' 본격 가동

재경부-고용부 TF 회의
채용·교육 프로그램 개시

정부가 최근 둔화세를 보이는 고용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 집행에 속도를 낸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6월부터 본격적인 채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1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 고용동향 분석과 함께 청년뉴딜 및 직접일자리 사업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4만 명 증가했으나, 전월과 비교해 증가 폭은 축소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서비스업의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 폭이 줄었다. 건설업과 제조업 역시 감소세가 지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열린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행사장에서 장병들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속됐다. 연령별로는 30~50대의 고용률은 상승했으나, 청년층과 60대 이상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나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고용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주요 과제를 5~6월 중 본격 개시한다.

우선 대기업이 주도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아카데미'는 현재 10대 그룹을 포함한 70여 개 기업에서 1만 2000명 규모의 교육과정 개설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참여기업 및 청년 선발을 거쳐 6월 중 '1호 아카데미'를 개설할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방폐물 시설 완공 하반기 운영 시작

기후부-원자력환경공단 준공식

국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핵심 거점이 될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준공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해 더욱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3일 오후 경주시 문무대왕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층처분시설은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 천연 방벽과 공학적 방벽을 구축해 방사능 농도가 낮은 저준위 이하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완공된 경주 시설은 2022년 착공 이후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됐으며, 작년 말 공사를 마치고 올해 3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2단계 시설은 200L 드럼 기준 총 12만 5000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다. 시설은 특히 5중 차단 방식의 다중방벽 구조로 시공돼 리히터 규모 약 7.0의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간담회 열고 상세 추진방향 설명
6년 내 저장탱크·접안시설 마련

부산항만공사(BPA)가 국제 탄소규제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선박 연료 병커링(급유)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6년 내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 일대에 그린메탄올 저장탱크·병커링 운반·공급선 간 접안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

한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 친환경선박 연료 병커링 인프라 구축 계획수립 간담회'가 개최됐다. 공사는 이 자리에서 상세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추진 방향은 오는 2032년까지 부산항신항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내 12만3000㎡ 부지에 37만㎡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비롯해 15만㎡ 규모의 접안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7월 출범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824건 통합, 512건 새로 제정 등 주민 생활 밀접 행정서비스 포함

전남도와 광주시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자치법규안(조례·규칙·훈령·예규)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13일부터 통합 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안을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에 맞춰 우선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다.

시·도는 앞선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



왼쪽부터 광주시청, 전남도청 전경.

규를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구분했다.

시·도는 합동심의 뒤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했다. 이중 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512건(824건 중 중복 등 통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법규는 특별시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통합 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행정운영의 기본 틀이 될 자치법규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대민 행정서비스 관련 자치법규가 포함됐다. 예산·회계, 공유재

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도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도 통합특별시 체제에 맞춰 정비한다.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관련 자치법규와 함께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마련한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할 수 있거나 상위법령·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농민공익수당·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자치법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곧바로 추진한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행정의 기초인 조직개편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출범한다”며 “통합 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오픈

영양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선보인다.

영양군은 주민과 전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인구정책 통합 홈페이지 ‘영양살이’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 혜택을 찾기 위해 여러 부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영양살이’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진주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 가동

경남 진주시는 최근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급증한 가동동 신진주역세권 지역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진행 방향의 신호를 녹색등으로 우선 제어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교통 정체가 심한 6개 구간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거제시

“거제서 한달살기 어때요?”

경남 거제시가 거제에서 한달간 머물며 지역 관광자원과 일상을 경험하는 ‘2026 거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참가자들이 일정 기간 거제에 머물며 지역의 관광·문화·먹거리·로컬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SNS·블로그·영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채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지원동기, 거제 여행계획, SNS 홍보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거제시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2026 작당페스타’ 16일 개최

부산지역 청년 커뮤니티와 청년 창작자를 위한 축제인 ‘2026 작당페스타’가 오는 16, 17일 양일간 부산 대표 청년문화공간인 중구 신창동 청년작당소에서 열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청년들의 문화 우주, 낯선 신호를 따라’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BNK 아트시네마의 3개 층을 모두 활용해 1층 야외 공간에서는 청년 창작자들의 ‘작당마켓’과 뮤지션 공연인 ‘은하수스테이지’, 토크 프로그램 ‘도킹스테이션’이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정부합동평가 역대최고 성과

정량지표 달성률 98.9% 현장 밀착형 정책 ‘효과’

경북도가 정부합동평가와 중앙부처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현장 중심 행정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도청 원용실에서 ‘정부합동평가 및 개별 중앙부처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정량지표 달성률 98.9%를 기록했다. 전체 96개 지표 가운데 95개를 달성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산발대응체계 정비,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점검 강화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도는 올해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3위권 진입을 목표로 32개 중점관리 지표를 집중 관리하고 시군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별 중앙부처 평가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고,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환경관리실태와 농촌진흥사업, 식중독 예방관리 등 여러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거뒀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포항AI데이터센터.

포항AI데이터센터, 내년 첫 상업운전

5500억 투입... 40MW 규모 구축

경북 포항의 AI데이터센터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금융조달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착공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 광명일반산단에 5500억원을 들여 40MW 규모로 구축되는 이 시설은 최근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다음달 착공해 내년 10월에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다른 상업 AI데이

터센터 사업보다 2~3년 빠른 추진 속도다.

이 센터의 전력사용효율(PUE)은 평균 1.25로 최상위권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PUE는 시설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IT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으로 1.0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다. 전 세계 일반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는 1.56 수준이다.

이 센터는 또 입지가 비수도권인데도 단층구조 설계로 초기 설비투자비도 크게 줄였다.

/포항=김진곤 기자 jingon@

대구 4월 취업자 전년비 2000명 증가

고용률 58.4%... 전년과 동일

대구의 4월 취업자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4월 대구광역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대구 취업자는 12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58.4%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0.2%포인트(p)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3만4000명, 농림어업은 2000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1만3000명,



지난 3월 31일 열린 ‘2026 대구·경북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시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만2000명, 건설업은 8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2000명 감소했다.

중상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8000명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는 1만명 증가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영남이공대, ‘AID 전환 전문대학’ 선정

(AI+디지털)

AI 실무인재 양성 본격화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대학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영남이공대학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기반 직업교육 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학은 ‘AI-Native 실무역량’으로 지역 산업을 혁신하는 X+AI 직업교육 선도대학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전공 분야별 AI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과 전문대학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교육 혁신 모델로는 ‘YNC형 지역산업(D6)+AI 실무인재양성 체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중심의 AI·DX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실무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AI·DX 교육 운영 기반 구축, 산학일체형 X+AI 교육 확대, 전 학과 AI 역량 강화, 교수학습 혁신, 지역 사회 AI 평생학습 거점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구=김강석 기자

K-콘텐츠 타고 관광객 급증... '外人 특수' 2분기도 웃는다

유통가, 방한객 수요로 내수 상쇄
롯데백 1분기 관련 매출 92% 신장
신세계백 연간 1조 돌파 눈앞
현대백 더현대 서울 121% 성장
롯데면세점 中 FIT 구매액 111% ↑

K-콘텐츠 열풍과 엔저·위안화 회복세에 힘입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국내 유통업체가 '외국인 특수'를 누리고 있다. 1분기 백화점 업계가 외국인 고객 증가에 역대급 실적을 거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황금연휴가 맞물린 5월에 힘입어 2분기 또한 장밋빛 실적을 받아들 전망이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백화점과 면세점 등 유통업체가 '외국인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K-콘텐츠와 명품 소비 수요가 맞물리며 주요 점포들의 외국인 매출이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가까이 치솟는 등, 외국인 소비



신세계 본점 아웃도어 매장서 외국인 고객이 쇼핑하는 모습.

/신세계백화점

가 내수 부진을 상쇄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약 4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관광객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유통업체에서

외국인 고객이 실적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번 1분기 백화점 업계는 K-콘텐츠와 명품 선호 현상에 힘입어 역대급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롯데백화점은 1분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92% 신장했으며, 특히 명동 본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23%까지 치솟았다. 신

세계백화점 역시 외국인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나며 연간 외국인 매출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현대백화점 또한 명품·위치·주얼리·패션 판매 호조와 더현대 서울이 1분기 외국인 매출이 121% 증가하는 등 외국인 고객 증가에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5월 초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맞물린 '황금연휴' 특수가 있어 외국인 고객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황금연휴 기간 동안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은 밀려드는 외국인 수요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광객 급증 시점에 맞춰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고 외국인 맞춤형 마케팅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110% 급증했으며, 신세계백화점도 명품과 주얼리 강세에 힘입어 전년 매출

이 35.4% 상승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의 외국인 매출이 155.3% 폭발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면세점 업계 역시 롯데면세점의 중국인 개별관광객(FIT) 매출이 111% 수직 상승하는 등 활기를 띠었다. 업계는 개별 관광 중심으로 재편된 소비 패턴에 맞춰 맞춤형 마케팅과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유정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한국 내수 시장에서 지난 외국인 카드 사용액 비중이 3.0%를 상회했다.

유 애널리스트는 "현재 한국 백화점 외국인 매출 비중은 5~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외국인 매출 비중이 계속 상승해 내수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서울(명동, 강남, 잠실)과 부산 지역에 랜드마크 점포가 있는지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이마트, 할인점·트레이더스 힘입어 1분기 최대 실적

연결 영업이익 1783억, 전년비 11.9% ↑
할인점·에브리데이 수익성 개선 뚜렷
트레이더스 매출 1조 돌파, 분기 최대

이마트가 본업 경쟁력 회복과 차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의 고성장에 힘입어 14년 만에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G마켓 연결 제외 영향으로 전체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할인점·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등 핵심 사업부의 수익성이 일제히 개선되며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 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대용량·가성비 소비 트렌드를 공략한 전략이 실적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13일 이마트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순매출 7조 1234억 원 영업이익 178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순매출은 G마켓의 연결 편입 영향으로 1.3%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90억 원(11.9%) 증가하며 2012년 이후 14년 만에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마트 용산점에 랜더스 쇼핑페스티벌을 맞아 계산대를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방문객들의 모습 /신세계

별도 기준 역시 총매출 4조 7152억 원 영업이익 1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 9.7% 성장하며 2018년 이후 8년 만에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할인점 사업부(이마트)는 설 선물세트 실적 호조와 통합 매입을 통한 원가 개선에 힘입어 기존점 매출이 2.0% 신장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2억 원 늘어난 803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스타필드 마켓으로 리뉴얼한 일산점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1% 증가하고 방문 고객 수가 104.3% 급증하는 등 공간 혁신을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트레이더스 사업부는 대용량·가성비 중심의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1조 60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영업이익은 12.4% 늘어난 478억 원을 달성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1분기 기존점 매출 신장률은 3.7%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억 원(51.4%) 증가한 83억 원을 기록했다.

기타 연결 자회사들은 업종별로 엇갈린 실적을 나타냈다. 조선희텔&리조트는 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투숙률 상승으로 순매출 1685억 원 영업이익 3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억 원의 이익 성장을 이뤘다.

신세계건설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7억 원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반면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해 부동산 일회성 처분이익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영업이익이 94억 원 감소한 270억 원을 기록했다

SCK컴퍼니는 원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58억 원 줄어든 29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온라인 부문의 SSG.COM은 21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46억 원 개선되었고 G마켓은 핵심 상품군을 중심으로 총매출액(GMV)이 4년 만에 반등하며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마트의 1분기 말 기준 연결 총자산은 34조 8832억 원 부채총계는 20조 7480억 원 규모다.

이마트 관계자는 "정용진 회장의 혁신적 패러다임 시프트가 1분기부터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존 사업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A I데이터 센터 건립 등 미래 신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쿠팡, 육아용품 할인전 '베이비&키즈쇼'

기저귀·물티슈 등 8000여개 할인

쿠팡이 17일까지 육아용품 할인행사 '베이비&키즈쇼'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예비 부모와 육아 중인 고객들이 선호하는 8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기저귀 브랜드 팜퍼스·하비스를 비롯해 페넬로페·베베슈 물티슈, 아이베넷·일동후디스 식품, 일리운·조르단 생활용품 등 다양한 육아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상품은 약 8000개 규모다. 대표 할인 상품으로는 ▲페넬로페 스위밍 팬츠 수영장 기저귀 ▲베베그로우 그린핑

거 퓨어베이비 젯병 트윈팩 ▲그린핑거 포레스트 프레쉬미베나 바디워시 등이 포함됐다.

와우회원에게는 구매 금액에 따라 추가 할인쿠폰도 제공된다. 3만 원 이상 구매 시 4000원, 6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육아에 필요한 주요 상품을 한데 모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라며 "부모 고객들의 쇼핑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GS리테일, GS Pay 가입자 700만명 눈앞

간편결제·쿠폰·포인트 연동 강화

GS리테일은 지난달 말 기준 GS Pay 누적 가입자 수가 691만 명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가입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달 내 70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GS Pay는 카드나 계좌를 한 번 등록하면 GS리테일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QR 스캔만으로 결제와 쿠폰 적용, 포인트 적립, 영수증 발행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우리동네GS 앱의 '나만의 냉장고', 사전예약, 킥커머스 서비스 등

과도 연동된다.

GS리테일은 GS Pay를 통해 충성고객 확보와 통합 마케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GS All 멤버십과 연계해 편의점, 홈쇼핑, 슈퍼마켓 등 전 채널에서 포인트와 혜택을 통합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방문과 교차 이용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이용 지표도 높게 나타났다. GS25에서는 GS Pay 이용 고객의 재방문율이 일반 고객 대비 1.6배 높았고 객단가도 약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GS샵에서도 GS Pay 이용 고객의 구매 빈도와 객단가가 각각 1.5배, 1.4배 높게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홈플러스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먹거리 등 최대 60% 할인

홈플러스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여름 더위에 맞춰 먹거리와 생필품, 바캉스·쿨링 상품 등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손질 붉은새우(아르헨티나산)'와 '흰다리 새우(국내산)'는 각각 50% 할인해 판매한다. '배홍동 비빔면·막국수'는 2+1 혜택을 적용한다. 여름 시즌 상품 할인도 함께 진행된다. '핸디 선풍기'와 '블루투스 마이크'는 최대 60% 할인하며, '심플러스 냉감 경추베개·바디필로우' 등도 특가에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CJ푸드빌 제일제면소

여름 맞아 '냉면' 개시 지역특색 살린 별미 세트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제일제면소가 여름 시즌을 맞아 냉면 메뉴를 전면에서 내세웠다. 계절 한정 수유가 뚜렷한 냉면을 중심으로 지역색을 더한 결집 메뉴와 세트 구성을 도입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일 물냉면'과 '제일 비빔냉면'(사진)은 매년 여름 반복 판매되는 시즌 메뉴다. 올해는 여기에 '충청도식 육전'과 '속초식 명태회무침'을 추가해 냉면과의 조합을 제안했다. 특정 점포에서 선보였던 육전을 전 매장으로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야구장 가기 전 들르세요”... 편의점, 1300만 팬덤 공략

GS25, 롯데월드 ‘오잉’ 협업 제2의 야구 전용 스낵 전략

CU, 두산 홈구장 인근 특화매장 맞춤형 먹거리·주류 할인 행사 개막 직후 점포 매출 50% 급증

프로야구 KBO 리그가 역대급 흥행 가도를 달리며 유통업계, 특히 편의점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개막 117경기 만에 2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올 시즌 총 관중 1300만 명 시대를 예고한 가운데, 경기 침체로 고심하던 편의점 업계는 야구 팬덤을 정조준한 마케팅으로 돌구를 찾는 모양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들은 프로야구 개막 이후 야구 팬덤을 겨냥한 협업 상품과 특화 매장, 한정판 굿즈 마케팅을 잇달아 선보이며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경기장 인근 점포를 중심으로 먹거리와 주류 판매가 급증한 데다, 구단별 팬덤을 겨냥한 차별화 상품들이 잇따라 흥행하면서 야구가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편의점 업계의 새로운 핵심 마케팅 소재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GS25 역시 야구팬들의 응원 문화를 반영한 차별화 스낵으로 맞불을 놓았다. 롯데월드프드의 ‘오잉’과 협업해 스트라이크 아웃을 의미하는 ‘K’를 전면에 내세운 ‘오잉K불황대맛’을 단독 출시했다. 야구장 인근 매장에서 ‘홈런볼’이 압도적인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데이

터에 주목해, 제2의 야구 전용 스낵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특정 구단과의 밀착마케팅으로 성과를 내는 곳들도 있다. ‘떡산’이라는 별칭을 가진 두산베어스의 홈구장 인근에 특화매장을 운영 중인 CU는 야구장 맞춤형 먹거리와 대규모 주류 할인 행사로 매출을 끌어올렸다. 실제로 개막 직후 야구장 인근 점포 매출이 전월 대비

최대 50% 이상 급증하며 팬덤의 구매력을 입증했다.

세븐일레븐은 전국구 팬덤을 보유한 KIA 타이거즈와 손잡고 ‘최강 호랑이즈’ 테마의 한정판 협업 상품 9종을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김도영, 양현종 등 주요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담긴 랜덤 스티커 85종을 안주와 베이커리류에 동봉했으며, 라벨을 벗기면 선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히든버어캔’ 등 재미 요소를 더했다.

세븐일레븐, KIA 타이거즈와 한정판 협업상품 9종 선봬

이마트24, SSG 랜더스 팝업존 사인·사진 유니폼 등 한정판매

이마트24는 트렌드랩성수점 내 SSG 랜더스 팝업존을 열고 최정 선수의 ‘26시즌 어센틱 어웨이 사인 유니폼’, 김광현 선수의 사진이 들어간 ‘25시즌 어센틱 홈 유니폼’, SSG랜더스 선수들

의 ‘26시즌 레드 어센틱 사인 모자’ 등을 한정 판매해 완판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편의점 업계가 야구로 시야를 돌린 데에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직면한 위기감과 프로야구 KBO 리그의 흥행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전국 편의점 점포 수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매출 성장률이 0.1%대에 머무는 등 내수 침체의 여파가 거세기 때문이다. 반면 프로야구의 경우 최소 경기·최소 일수로 정규 시즌 1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팬덤의 위력이 더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구단이나 선수에게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스포츠 팬덤의 구매력은 여전히 독보적”이라며 “편의점이 단순한 소매점을 넘어 팬들이 굿즈를 수집하고 응원 문화를 공유하는 ‘오프라인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벤슨’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판도 바꾼다

론칭 1주년... 내년까지 100호점 목표 가공부터 포장까지 원스톱 시스템 국내 낙농가 연계 효과로 이어질 전망

한화갤러리아의 자회사 베리스쿱크리머리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Benson)’이 론칭 1주년을 계기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회사는 독보적인 원재료 경쟁력과 제조 공정을 앞세워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의 기준을 재정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2027년까지 전국 100호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베리스쿱크리머리는 지난 12일 경기 포천 생산센터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벤슨의 제조 공정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벤슨의 생산 기지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천 생산센터는 원유 가공부터 배합, 냉각, 충전, 포장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으며, 생산 공정에는 한화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이 도입돼 품질 일관성을 높였다.

벤슨은 지난해 5월 서울 압구정로데오에 첫 매장을 연 이후 1년 만에 15개 점포를 운영하며 빠르게 입지를 넓혔



벤슨의 전 제품이 생산되는 경기 포천 생산센터 내부. /베리스쿱크리머리

다. 주요 복합소핑몰 팝업스토어에서 ‘오픈런’ 현상을 일으켰고, 스타벅스코리아 매장 입점과 프로야구단 한화 이글스, 걸그룹 엔믹스 등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회사 측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기존 제품 대비 높은 선호도를 확인했다며 품질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품 차별화의 핵심은 원재료와 공법이다. 벤슨은 국산 원유와 유크림을 사용해 유지방 함량을 최대 17%까지 높였고, 공기 함유량을 의미하는 오버런을 약 40% 수준으로 낮춰 밀도 높은 식감을 구현했다. 인공 유화제 등 첨가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클린 라벨’ 원칙도 적용했다. 회사는 이러한 제조 철학이 프

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차별적 포지셔닝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유통 전략도 다각화한다. 오프라인 직영 매장을 중심으로 온라인 채널 입점, 배달 플랫폼 강화, 모바일 선물하기 도입 등을 통해 판매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63빌딩과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신규 매장을 열며 핵심 상권 공략을 이어간다. 올해 30호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2027년에는 100호점까지 확대한다는 로드맵이다.

벤슨의 확장은 국내 낙농가와의 연계 효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회사에 따르면 국산 유제품 매입량은 2025년 267톤에서 2027년 1837톤으로 약 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미약품, 2년 연속 글로벌 ESG 경영 입증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편입

한미약품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표에 부합하는 경영 역량으로 K제약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다.

한미약품은 세계적인 금융기관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발표하는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코리아 지수에 2년 연속 편입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수는 핵심적인 투자 척도로, 국내 유동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 중 경제·사회·환경 등 주요 기준에서 상위 30% 이내에 드는 기업만이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한미약품은 이번 평가에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과 정책 시행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대웅제약, ‘염증성 장질환’ 신약개발 박차

이노보테라퓨틱스와 계약

대웅제약이 ‘점막 치유’에 중점을 둔 차세대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해 글로벌 염증성 장질환 시장을 정조준한다.

대웅제약은 이노보테라퓨틱스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INV-008’에 대한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약 6625억원으로 선급금 65억원과 임상 단계별 조건부 지급금(마일스톤) 6560억원을 포함한다.

‘INV-008’은 경구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프로스타글란딘E2(PGE2) 분해효소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PGE2는 장 점막 재생에 관여하는 물질로, 이 약물은 손상된 장 점막을 회복을 돕는다. 면역이나 염증 관련 신호를 차단하는 기존 약물과 차별화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약물을 향후 장 외에 근육, 뼈 등 조직 재생이 중요한 질환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왼쪽)와 박희동 이노보테라퓨틱스 대표(오른쪽)가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념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대웅제약

에서 확대 적용하는 등 재생 의료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임상 초기 단계부터 개발 방향을 주도해 적응증 확대, 글로벌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를 전담하고 이노보테라퓨틱스는 인공지능 기반 후보물질 발굴, 초기 연구개발 등에 집중해 협업을 극대화한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2080’, 입냄새 잡는 ‘덴티리프’

구취 가글·마우스 쿨 스프레이 선봬

애경산업이 구강관리 브랜드 ‘2080’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구취 관리 제품을 내놓으며 헬스케어 영역으로 브랜드 입지를 넓힌다.

애경산업은 2080에서 ‘덴티리프’ 제품군 2종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가장 큰 구강 고민 중 하나인 입냄새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2080 덴티리프 구취 가글은 양치 후에도 남아 있는 구강 유해균에 의해 형성된 프라그를 없애 각종 구강 고민을 완화해 준다. 잇몸질환, 충치 등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진지발리스균과 뮤탄스

균을 각각 90.1%, 79.1% 억제한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 가스도 제거한다.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 30초 1회 사용 시, 사용 전보다 황화수소(썩은 달걀 냄새)는 93.6%, 메틸머캅탄(썩은 양파 냄새)는 91.1%, 디메틸설파이드(썩은 양배추 냄새)는 96.5% 각각 감소했다.

이와 함께 출시된 2080 덴티리프 마우스 쿨 스프레이는 99.9%에 달하는 항균력을 갖췄다. 또 녹차추출물, 유칼립투스추출물, 카렌듈라추출물, 마루비움추출물, 카모마일추출물 등 자연 유래 성분을 복합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타기 직전까지 끌어올린 반전의 맛

셰프의 킥
브라운 버터 오일



캐러멜라이즈드
에니언

벤트치즈번스



스모크
비프패티

By chef 네비딱한 천재

벤트비프버거

단품 8,800원 | 세트 10,700원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기중앙회-저고위, 저출생 대응·중기 지원 논의
중기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저출생 대응 현안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BNK부산은행-주금공,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
BNK부산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창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김성주 BNK부산은행 은행장(왼쪽)과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세븐일레븐, 점포 '식품안전심업소' 인증 확대
세븐일레븐은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심업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븐일레븐은 연내 지정 점포 수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대일 세븐일레븐 대표이사,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구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12일 '제24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여 의약품 광고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임경민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콜마비엔에이치, 지속가능경영·자율준수 선언식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지속가능경영 및 자율준수 선언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승화 콜마비엔에이치 대표(왼쪽 네 번째)와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콜마비엔에이치

대한항공, 퇴역 항공기 새 단장... "미래세대 영감 줄 것"

美 과학센터에 보잉 747 기증
지역사회 항공 교육공간 활용

"미래의 조종사, 엔지니어,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영감을 줄 것입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에 항공 교육 공간을 환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항공기를 기증했다. 이는 미래 세대는 물론 전 연령층이 항공기에 대해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한항공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에 선지될 보잉 747 퇴역 항공기 전시물을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항공기는 보잉 747-400 기종으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1만3842회, 8만6095시간을 비행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서 진행된 항공기 공개 기념식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는 이 항공기의 1·2층 기내, 벨리카고, 랜딩 기어를 포함한 항공기 바퀴 부분을 모두 활용해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은 2023년 대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에 대한항공이 기증한 보잉 747-400(HL7489) 항공기. /대한항공

한항공의 후원을 계기로 마련됐고 전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일반 방문객을 맞을 계획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기념식에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스앤젤레스는 대한항공에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다"며 "젊은이들에게 비행에 숨겨진 과학과 상상력을 보여주고

미래의 조종사, 엔지니어,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영감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은 미래 세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삼양사, 반도체 공급망·소재 경쟁력 강화

이원중 팀장, 과학의 날 장관 표창

삼양사는 화학연구소 전자재료 프로그램(Program) 이원중 팀장(사진)이 지난 12일 열린 '2026년도 과학의 날 과학기술진흥유공 부총리 표창 전수식'에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팀장은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이 독점해 온 옥심계 광개시제와 비이온성 광산발생제 국산화 연구를 주도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소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팀장은 2012년부터 5년간 한국화학연구원과 협력해 옥심계 광개시



제를 공동 개발했다. 2018년부터는 3년간 자체 연구를 통해 초고감도 옥심계 광개시제와 비이온성 광산발생제 개발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옥심계 광개시제와 광산발생제 신규 구조 등에 대한 국내외 특허 37건 이상을 등록했고 감광성 핵심 소재 6종의 양산화에도 성공했다.

이 팀장은 "삼양사 화학연구소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 국산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 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지난 12일 진행된 '제23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르노코리아 상회정 대내/외전략본부장(왼쪽 두번째)과 장관표창을 수상한 남형훈 디렉터(왼쪽 첫번째), 정현무 디렉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 임직원, 대통령·장관 표창

자동차의 날 기념식

자동차 산업발전 공로 인정

르노코리아 임직원들이 '제23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르노코리아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주관으로 12일 진행된 '제23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상회정 대내/외전략본부장이 대통령표창을, 남형훈 디렉터와 정현무 디렉터가 각각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상 본부장은 지난해 '르노 누벨 바

그' 전략 아래 사명 변경과 신규 로장주 엠블럼 도입, '르노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 등을 총괄했다. 또 하이브리드 신차 개발 프로젝트인 '오로라 프로젝트'의 대외 전략 수립을 맡아 친환경차 라인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으며, 미래차 시험개발센터 설립과 폴스타4·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의 부산공장 유치에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장관표창을 받은 남형훈 디렉터는 르노코리아 주요 차량 개발 프로젝트를 이끈 점을 인정받았다. 정현무 디렉터는 부산공장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표창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공영홈쇼핑, 긴급 판로지원 119센터 개소

중소·소상공인 지원 체계 강화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 판로지원 119센터'를 열었다.

1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긴급 판로지원 119센터는 유통사 폐점, 정산 중단 등의 거래쳐 문제를 비롯해 재난·재해 등으로 판로가 막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 빠르게 돕기 위

해 마련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은 고유가 피해 기업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필수 부품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5월 말 개설되는 '고유가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상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10% 적립 프로모션 진행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기관간 전보 △통신정책관 남석

부음

▲김아림씨 별세, 김의태(전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씨 자녀상 = 12일 오후 2시

16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02-3410-3151

▲김순덕씨 별세, 윤재홍(전뉴스통신진흥회 이사·전 KBS 제주방송총국장)씨 부인상, 윤형배(기아자동차 과장)·윤형일(개인사업)씨 모친상, 강계영씨 시모상 = 12일 오전 10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5일. 02-2227-7500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후원

두산연강재단이 세계 최대 미술 축제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후원에 나서며 시각예술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두산연강재단은 11월 22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에서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 제61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관은 '해방공간'을 주제로

1945년 해방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건과 역사적 전환기를 조명한다.

두산연강재단은 시각예술 분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한국관 후원에 참여했다. 특히 재단의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두산아트랩'을 거친 노혜리 작가와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슈퍼바이저로 활동 중인 최빛나 예술감독이 한국관 전시에 참여하면서 후원의 의미를 더했다.

/원관희 기자

거점국립대, 정성평가와 성실성이 승부처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지형이 2028학년도를 기점으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고교 내신 5등급제 전환과 수능 선택과목 폐지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입시 제도 변화에 발맞춰 전국의 주요 거점국립대학교들은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업 역량이 검증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형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했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는 기존 9등급 체제에서 1등급이 차지하던 상위 4%의 범위를 10%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는 내신 성적의 상향평준화를 초래해 대학 입장에서는 단순 등급만으로 학생의 학업 우수성을 변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대응해 거점국립대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시 등급 점수와 성취도 점수를 결합하는 정교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충북대학교의 경우, 1등급(5.0점)을 받더라도 성취도에서 A가 아닌 B를 받게 되면 최종 합산 점수에서 감점이 발생한다. 즉,

내신 등급 숫자를 넘어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 성취도인 'A'를 유지하지 못하면 합격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변별 포인트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단순히 등급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절대평가 과목에서도 완벽한 성취를 거두어야 한다. 또한, 대학들이 교과 종합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이수율의 충실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통해 자신의 학업 역량과 진로 탐구 과정을 입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202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수능 성적 100% 반영이라는 전통적인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능의 변별력 약화 우려 속에 주요 거점국립대들은 정시에서도 고교 생활의 성실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부산대학교는 2028학년도부터 실기 제외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80% + 학업충실도 평가 20%' 방식을 도입하며, 경북대학교 역시 정시 가군에서 교과 성적을 10% 반영한다. 이는 정시를 주력으로 준비하는 N수생이라 하더라도 고교 시절의 출결이나 교과 이수 노력이 부족할 경우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지방 소멸과 지역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대규모로 신설되

나 확대됐다. 충북대(49명), 강원대(49명), 전북대(42명) 등은 수시와 정시를 아울러 지역의사를 선발하며, 이는 지역 내 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강원대학교처럼 해당 지역 내 고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를 증명해야 하는 등 지원 자격이 매우 엄격하므로 조기에 요건을 확인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엄격하게 반영된다. 부산대학교는 학폭 1~3회 처분 시 전형 총점 1000점 기준 300점을 감점하는데, 이는 사실상 합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준이다.

2028학년도 거점국립대 입시는 단순히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고교 생활 3년 전체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종합 평가 체제로 진화했다. 수험생들은 통합형 수능 체제에 맞춰 문·이과 구분 없는 균형 잡힌 학습 스케줄을 수립하는 동시에, 대학의 정성평가 기준에 맞춰 자신의 진로 로드맵에 따른 전략적인 과목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 거점국립대학교는 이제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닌 '역량 있고 성실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줄 아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J/JSB전진학연구소장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4일 (음 3월 2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취** 48년생 큰 일을 꾸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60년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책이 보입니다. 72년생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84년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 49년생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61년생 과속에 절대 주의하세요. 73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85년생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 호랑이** 50년생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62년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74년생 사업에서 작은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86년생 남의 말을 너무 그대로 쉽게 믿지 마세요.
- 토끼** 51년생 소꿉친구 큰 돈을 쓸 수 있습니다. 63년생 몸이 건강해져 마음도 건강합니다. 75년생 안정을 취하고 다음을 위해 힘을 비축하세요. 87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 용** 52년생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4년생 동쪽으로 가면 바라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76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88년생 애정운이 아주 좋습니다.
- 뱀** 53년생 야외활동을 하면 길합니다. 65년생 어릴 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보세요. 77년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89년생 모든 일에 노력을 하세요.
- 말** 54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것입니다. 66년생 이성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78년생 언행에 주의하세요. 90년생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 양** 55년생 현재에 만족하세요. 67년생 어렵게 일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79년생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것입니다. 91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길합니다.
- 원숭이** 56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68년생 끝까지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80년생 남의 작은 행복을 시기하지 마세요. 92년생 무엇이든 만사형통한 좋은 운입니다.
- 닭** 57년생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69년생 오늘이 바로 길입니다. 81년생 한가지 일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93년생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 개** 58년생 단기간이지만 필요한 인원치로도 불사해야 합니다. 70년생 전업은 지금은 길하지 못합니다. 82년생 부지런히 여러 곳을 뛰어 다녀야 합니다. 94년생 뜻밖의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 돼지** 59년생 금전운과 이성운 모두 좋은 시기입니다. 71년생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삼가하세요. 83년생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95년생 좋은 사람들에게 편잔을 주지 마세요.

신들린 'GDP'와 KOSPI



김 언 세
(정책사회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13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0.6% 포인트(p)나 올렸다. GDP(국내총생산)가 작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국제투자은행(IB)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 상황에 가세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평균만 봐도, 8개 주요 IB가 제시한 평균치가 2.4%에 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만 1.7%(직전분기 대비) 성장했다. 현재 기준 주요국 중간순위 1위가 바로 한국이다. 경제대국 미국·중국, 인구대국 인도네시아까지 제쳤다. 비록 연간 집계는 아닐지

언정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0개국 중 선두에 올라 있다.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도 중간집계 1위다. 이날까지 수치를 공개한 OECD 20국 가운데 한국만 유독 1% 선을 넘겼다. 다만 아직 안 나온 18개국 수치를 지켜봐야 한다. 어쨌든 유럽연합(EU) 국가들 평균은 0.1%에 머물고 있다. OECD에선 한국뿐이지만 G20에선 1%대가 보고됐다. 중국이 1.3%, 인도네시아가 1.4%였다. 반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직간접으로 휘말린 사우디아라비아의 1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1.5% 줄었다. 경기가 후퇴한 것.

OECD 내 개도국 회원국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1.7%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 0.3%, 체코 0.2%, 리투아니아 -0.4%(역성장), 멕시코 -0.8%(역성장) 등

이다. 또 유럽 주요국 중 아일랜드의 경우, 일시적이지만 -2.0%의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1분기 속엔 중동 사태의 영향의 일부 자리 잡았다. 2월 말 터진 전쟁은 3월에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기의 턱을 토포한 듯하다. 중동전이 없었다면 2%를 넘었을 수도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더욱 놀랍다. 마치 마이클 펠프스나 우사인 볼트가 신기(神技) 부리는 것 같다. 자기가 보유한 세계 기록을 자기가 갈아 치우는 모습이다.

성장률도 주가도 뭔가 정상(正常)은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환율 1400원대 후반, 국제유가 100불·휘발유 2000원이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데 GDP와 주가의 직진이 맞는지, 어울리는 옷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세종=kys@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전 세계의 사면들

뉴스를 보니 코리아사면에 빠진 외국인 MZ들이 화제였다. 영적 체험으로 서울 근교의 기도 터로 알려진 인왕산 굿당에 줄을 선다는 것이다. 연이은 내용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 목적이 쇼핑이나 미식, K-팝 공연 관람을 넘어 이제는 점을 보러 한국에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K-샤머니즘'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급부상했다."라고 했다. 세상에나! 시절이 변해도 이렇게 변했나 싶다. K-Pop, K 드라마 등 한국 음악과 영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잡고 있지만, 무속적인 면까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된다더니, 사람의 인식 속에 음지에 속하던 무속신앙이 훌륭한 문화콘텐츠로서 위상을 달리 하는 것이다. 일시적 현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열풍을 통해 샤머니즘이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거의 모든 문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이들은 제사장이었다. 무한한 초월적 존재인 천신들, 더 나아가 우주와의 소통 능력을 지닌 제사장이야말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우려했던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통자였고,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수장이었다. 과학 발달이 농본 위주에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관장하던 역할에서 개인의 운명이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생계인 것으로 격하되었지만, 사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샤머니즘이었다. 서양에도 사면은 생각보다 많다. 크리스탈 점 타로점 최면을 통한 점부터 점성술사까지 다양하다. 미국의 고 레이건대통령 낸시 여사의 점 사랑은 너무도 유명하다. 양지에 속하는 제도권 종교권에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전 세계의 사면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영적인 문제 해결사일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소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9	4	3		1		7
5			9			8	3	
			1					8
		3	7					
9								3
					4	9		
	7				3			
		6	3		2			4
3	2		9	1	8	7	6	

2	3		9	5		6	8	4
1		8						7
						2		
			3	7				2
5		9				4		3
7				6	1			
		3						
	1					7		6
6	8	2		4	3		9	1

9	2	8	1	6	5	2	7	3
7	1	5	2	3	8	9	6	8
8	6	2	8	7	9	5	2	1
1	6	7	9	2	8	9	2	1
8	9	7	1	5	8	1	2	6
5	2	9	6	8	2	8	1	7
6	8	1	5	2	1	7	9	9
2	7	8	1	6	2	9	9	
2	9	1	9	8	7	6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1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선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시교육청, 9.7억 투입해 민원상담실 150곳 구축한다

개별 교원 대신 기관 중심 대응 CCTV, 비상벨 등 장비 설치도 업무용 휴대전화로 공적소통 나서



서울시교육청 용산 청사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정비에 나선다. 교육 활동 침해성 민원과 폭언·폭행, 교원 개인 연락처 노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150곳에 민원상담실을 시범 구축하고 안전장비와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에 나선다. 올해 투입 예산은 9억7000만원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학교민원 및 폭언·폭행 발생,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로 인한 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학교가 개별 교원 대신 기관 중심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 목적이다. 사업은 ▲학부모 상담·생활교육 등을 위한 민원상담실 복합공간 조성 ▲CCTV·비상벨 등 학교 민원대응 안전장비 구축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민원상담실은 민원 응대뿐 아니라 학부모 상담,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별 학생 교육지원 공간으로 활용된다.

학교 상황에 따라 CCTV, 비상벨, 녹음전화기, 웨어러블캠 등 장비도 설치된

다. 비상벨 작동 시 교무실 등에 즉시 알림이 전달되도록 하고, 녹음·영상 기록을 통해 특이민원 대응과 사후 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내 CCTV 설치의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학교 정문·후문, 건물 출입구, 복도, 계단 등을 CCTV 필수 설치 장소로 규정했다.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추진된 후속 조치로,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무용 휴대전화기 필요한 학교는 민원상담실 구축 지원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기기 구입과 통신비에 사용할 수 있다. 교원 개인 연락처 노출을 줄이고 공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교원단체에서도 민원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전국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 이탈 및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이 28.9%로 가장 많이 꼽혔다. 교총 관계자는 "무분별한 학대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사전에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교직 기피 현상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활동 보호는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중심의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려대 건물 옥상에 태양광 인프라 조성

SKT와 1.8MW 설비 구축 사업 착수 1069억원 이산화탄소 감축 기대 전기요금 약 3억5000만원 절감 추산



지난 12일 고려대 SK미래관 최중현홀에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에 참석한 고려대 정순영 교무부총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SKT 김규영 엔터프라이즈사업본부장(부사장,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

고려대학교가 서울캠퍼스 20개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연간 이산화탄소 1069톤을 줄이고 전기요금 약 3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고려대에 따르면, 대학은 SK텔레콤과 함께 서울캠퍼스 내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전날 교내에서 기공식을 열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경영본관, 라이시움 등 서울캠퍼스 20개 건물 옥상에 약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생산된 전력은 학교 운영에 직접 활용된다.

SK텔레콤은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과 운영 시스템 마련을 맡는다. 발전량과 설비 상태, 에너지 사용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제어·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약 1069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나무 약 21만38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정순영 고려대 교무부총장은 "태양광 인프라 구축은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교육부는 최근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 4378

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시설 전반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대학가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시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립대학에도 태양광 설비 확충을 지원하며 교육 시설 전반의 에너지 전환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15만㎡ 규모 도시숲 리모델링

10개 시군 13곳서 추진



행신동 도시숲 리모델링 /경기도

경기도가 도심 내 노후 녹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정비에 나선다. 수목 보원과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숲의 기능을 회복하고, 기후 대응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용인시 고기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10개 시군 13곳에서 총 15만㎡ 규모의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조성 이후 시간이 지나 기능이 약화된 녹지로, 수목 상태와 생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도심 녹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목의 노쇠와 병해 피해 등으로 본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7년부터 기존 녹지를 재정비하는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해왔다. 기존 공간을 활용해 토지 확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녹지 회복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정비는 단순 시설 보수에서 벗어나 수목 식재와 생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다. 이를 통해 숲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생활권 녹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찾는 녹색 쉼터로 재탄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은 화성시 병점근린공원과 의왕시 학의동 완충녹지 등 총 13곳에서 추진된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10개 시군 21곳에 37억2800만원, 2024년에는 9개 시군 16곳에 33억3000만원을 투입해 도시숲 복원을 진행했다. 2025년에도 14개 시군 18곳에 44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을 이어왔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구리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실시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 등록

견 사망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구리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과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

이번 신고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추진 중인 동물 등록제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이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5월 14일 (木) 음력 : 3월 28일

수도권 날씨 15~31°C

운중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24 | 해질 / 19:33

지역별 날씨: 인천 13/29, 동두천 14/29, 가평 13/28, 파주 13/30, 서울 15/31, 양평 14/29, 인천 14/29, 수원 14/30, 용인 14/30, 평택 12/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英·濠, 호르무즈 해협에 드론·군함·전투기 등 파견키로
- ▲日방산업체 수주잔고 15% 증가...“무기수출 허용에 더 늘었다”



- ▲‘MBA 학위 파격 할인’...재정난 美대학, 학생 유치전
- ▲젠슨 황, 결국 트럼프 방종길 동행

/사진 뉴스

- ▲트럼프-시진핑 회담 선물...미국산 LNG 중국 직항
- ▲中매체, 트럼프 방종 직전 견제구...“대만 문제는 암초”



K-콘텐츠 타고
관광객 급증
유통가 함박웃음
니



Life

편의점
한정판 굿즈 등
야구 팬덤 공략
L2



상처치유에서 피부혁신으로 50년 연구로 'K-더마' 신화 쓰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동국제약 '센텔리안24'

1968년부터 쌓아온 피부과학 노하우 상처 치료제 성분, 화장품으로 진화
진정·보습·재생 등 피부고민 해결해

일본, 미국, 동남아 등 글로벌로 확장
항산화 효과 '마데카크림 타임 리버스'
PDRN, 말차 제품군 등 라인업 구축
기술력 바탕으로 토탈 헬스케어 완성

동국제약이 종합적인 헬스케어 기업으로 변신하며 올해는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사업이 동국제약의 고성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마데카'라는 강력한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구축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가 있다.

센텔리안24의 성공 서사는 동국제약이 1968년부터 쌓아온 피부 과학 노하우에서 시작된다. 상처 치료제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마데카솔의 핵심 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테카)'를 화장품에 접목해 브랜드를 완성했다. 테카를 비롯해 다양한 병풀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력에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피부과학 연구 결과를 더했다.

특히 테카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원물 100Kg에서 단 2%만 획득할 수 있는 유효 성분이다. 피부 진정, 보습, 재생 등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마데카크림'은 센텔리안24 대표 제품이다. 2015년 4월 처음 공개된 후 올해 2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9100만 개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브랜드 출시 10주년을 맞으며 2025년 3월에 누적 판매량 7300만 개 돌파한 데 이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센텔리안24 브랜드 누적 매출액 역시

2024년 12월 기준 1조원을 넘겼다.

또 센텔리안24 브랜드 매출을 포함한 헬스케어 매출은 매년 커졌다. 최근 5개 연도만 살펴봐도, 2020년 1651억원, 2021년 1789억원, 2022년 1981억원, 2023년 2331억원, 2024년 2736억원, 2025년 3164억원 등으로 해당 기간, 연 평균 성장률은 13.9% 수준이다.

이러한 호실적은 동국제약 전체 성장에 주효했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실적으로 매출 9269억원, 영업이익 966억원을 올렸다. 영업이익률은 10.4%를 기록했다. 2023년 7310억원, 2024년 8122억원 등으로 앞 자릿수를 바꿔 1조원 가까이 치달으며 외형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각각 669억원, 804억원, 966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동국제약은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고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독자 성분을 내세운 브랜드 정체성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유통망을 확대 구축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펼친다. 기존 흡수팩을 시작으로 CJ올리브영 등 헬스앤뷰티숍 등에서 소비자 접점을 확보했다. 국내 시장을 평정한 센텔리안24의 영토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일본에서 돈키호테, 로프트, 마츠모토키요시 등 총 10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순차적으로 입점했다. 시부야, 신주쿠, 긴자 등 도쿄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K뷰티를 대표하는 더마 브랜드 입지를 다진다.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 등 브랜드 대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미국에서는 얼타 뷰티 1400개 전체 매장으로 진출했다. 얼타 뷰티는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알려진 뷰티 전문 매장으로 미국 주류 시장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았음을 의미한다.

K뷰티 신흥국인 동남아 지역에서 현지 유통망 강화에 나선다.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왓슨스 K-뷰티 페스타 2026'에 참가한 데 이어 태국에서 왓슨스 100개 지점을 통해 해당 시장을 공략한다. 왓슨스는 글로벌

헬스앤뷰티숍이다.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는 뷰티 편집숍 뷰트리움 30개 매장, 센트럴 백화점 12곳, 뷰티 플랫폼 콘비 4개 지점 등 유통 네트워크를 마련했다.

PDRN 제품, 마데카 말차 제품 등 브랜드 주력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는 동국제약이 50년 이상 축적한 피부 과학 기술을 집약한 제품이다. 독자 구축한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성분'에 5가지 특허, 병풀 연구 등을 더해 종합적인 항산화 기능을 완성했다. 피부 주름, 탄력, 톤 등 10가지 복합적인 고민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동국제약은 상처 치료제에서 시작한 '마데카' 효과가 전 세계인 일상을 관리하는 메가히트 브랜드로 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데카 제품군은 물론, 차세대 소재를 활용한 PDRN 제품, 말차 제품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액티브 리뉴 PDRN의 경우 테카 성분에 5가지 PDRN 성분을 처방한 제품이다. 병풀, 연어, 여성초, 마린, 장미 등에서 추출한 각각 다른 분자량을 가진 PDRN 성분을 독자 배합했다. 피부 속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췄다.

360도 샷 PDRN 액티브 세럼, 리프팅 아이크림 등은 식물성 콜라겐, 레티놀 등을 복합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또 말차의 항산화 성분을 집약한 제품도 내놓고 있다. 마데카 말차 포어 클렌징 오일과 마데카 말차 토닝 필링 젤에는 한국 전통 발효 기법으로 두 번 발효시킨 제주 말차 성분이 더해졌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글로벌 전역에서 센텔리안24만의 기술력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순히 K뷰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토탈 헬스케어를 완성하는 'K더마'의 위상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센텔리안24 '마데카' 제품군



1



2



3

1 CJ올리브영과 협업한 포켓몬 캐릭터 '푸린' 한정판.

2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

3 센텔리안24는 지난 3월 일본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이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 '메가와리'에서 한정판으로 '마데카 PDRN 사쿠라'를 공개했다. /동국제약



▲MLB 애틀랜타 김하성, 복귀전서 불넷 출루·호수비
▲현대차, 뉴욕서 FIFA 월드컵 기념 특별 전시관 열어
/사진 뉴시스

▲북중미 나설 태극전사 26명 윤곽... '깜짝 발탁' 있다
▲손흥민, 메시 이은 2위... 2026시즌 MLS 연봉 167억원

▲최혜진, LPGA 투어 첫 승 재도전...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
▲NBA 골든스테이트, 스티브 커 감독과 동행... 2년 연장

SAMSUNG

Galaxy S26 Ultra Galaxy AI ✨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펜은 갤럭시 S26 울트라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최대 혜택을 만나보세요